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柳 浚 景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漢文本 <淑香傳>의 異本 樣相과 特性

2018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 文 學 科

金 玄 京

漢文本 <淑香傳>의 異本 樣相과 特性

柳 浚 景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 文 學 科

金 玄 京

認 准 書

金玄京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17년 11월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본고는 한문본 <숙향전> 이본의 양상과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조선후기 많은 이본을 양산해내며 향유되었던 작품이기에 그 이본의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본에 대한 연구는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그 차이를 살핀다면 작품의 성격을 비롯하여 작자와 독자들의 의식을 살펴보는 것에 있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문본 <숙향전> 이본은 당시 한문 구사층의 시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기에 본고에서는 한문본 <숙향전> 이본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주제의식의 차이와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한문본 <숙향전> 이본은 필사본, 현토본 모두 포함하여 총 12종으로 본고에서는 12종의 이본을 모두 살펴보았다. 먼저는 서지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였고 각 이본들의 고유명사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였다. 이에 이본들을 고유명사의 유사성에 따라 세 계열로 분류하였으며 또한 각 계열의 가장 善本을 찾고 대표본을 설정하여 이본 간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본 간의 차이는 서사전개를 통하여 찾을 수 있는 계열별 특징과 인물형상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계열별 특징으로 나누어 살폈다. 서사전개는 <숙향전>의 중요한 줄거리인 숙향이 탄생하는 부분, 숙향이 겪는 다섯가지 고난부분, 이선과 숙향이 결연하는 부분, 숙향이 부모와 상봉하는 부분, 이선이 선약을 찾으러 떠나는 선계여행 부분으로 총 다섯가지 부분을 살폈으며 인물형상은 주인공인 숙향과 이선, 큰 역할의 조력자인 마고할미, 보조인물군의 김전과 장승상부인의 모습을 살폈다. 이에 계열간의 두드러지는 특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에 나타나는 이본의 계열별 양상과 주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계열은 국문본의 서사를 줄거리 중심으로 축약한 모습이다. 국문본을 대거 축약하였으나 서사전개와 중심 줄거리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문본의 비현실적인 내용을 이어받아 전개된 편이나 운명과 정성을 병치해 놓은 국문본과는 달리 정성은 약화되었으며 운명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열은 국문본과 ㉠계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서사전개를 보인다. 하지만 상황이나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거나 부연시켜 표현한 부분들이 매우 많다. 또한 이처럼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강한 유교적 지배이념을 드러내기도 하며 지배질서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계열은 환상성을 보이는 장면과 인물들이 대거 탈락되어 있다. 한문을 사용하는 계층의 합리적 사고를 이용한 개작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며, 이는 애정과 통속성이 강조되는 재자가인적 소설의 모습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상층의 시선으로 윤리의식을 강화시키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각 한문본 <숙향전> 이본의 양상과 특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본 간의 다양한 차이와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이본연구의 중요성을 더욱 확실히 하였다. 또한 이본 각 텍스트가 갖는 주제의식에 변화를 통하여 독자층의 차이가 이본의 차이를 만들어 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독자층을 밝히는 일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目 次

論文概要

I. 序論	1
1. 研究 目的	1
2. 研究史 檢討 및 研究 方法	3
II. <淑香傳> 異本の 資料現況	7
1. 異本別 書誌事項 및 敘事段落	7
2. 系列 分類 및 善本 抽出	12
III. <淑香傳> 漢文本 異本 系列의 特性 比較	20
1. 事件 展開와 系列別 特徵	20
1) 淑香의 誕生	20
2) 다섯가지 苦難	24
3) 李仙과 淑香의 結緣	35
4) 父母와의 相逢	40
5) 李仙의 仙界旅行	45
2. 人物 形象과 系列別 特徵	48
1) 淑香의 形象 - 苦難과 運命	49
2) 李仙의 形象 - 사랑과 精誠	54
3) 麻姑의 形象 - 超越과 世俗	57
4) 父母의 形象 - 慈愛와 潔白	61
IV. <淑香傳> 異本の 系列別 主題意識의 樣相과 그 意味	67
V. 結論	73

參考文獻

ABSTRACT

I. 序 論

1. 研究 目的

고전소설의 경우 책을 제작할 때 손으로 직접 쓴 것인가 아니면 인쇄라는 복제방식을 사용한 것인가에 따라 크게 사본(寫本)과 인본(印本)으로 구분한다. 사본을 지칭하는 명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본은 주로 붓을 사용하여 제작하기에 흔히 필사본(筆寫本)이라고 한다. 인본의 경우는 판목에 새겨서 인쇄를 하는 경우에 판본 또는 판각본이라 하며, 활자로 조판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활자본 또는 활판본이라고 한다.¹⁾ 우리나라는 주로 필사본 형태의 소설이 주를 이루었다. 즉 개개인의 독자들이 작품을 읽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작자가 되어 당대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였으며 자신의 가치관이나 의식세계를 작품에 담아내기도 하였다. 독자는 작품의 수동적 수용자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 참여자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고전소설의 독자는 필사 과정에서 이본을 파생시키기도 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제2의 작자라고 할 수 있다.²⁾ 고전소설은 위와 같은 과정들을 통하여 많은 양의 이본을 만들어내게 되며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소설은 전파되었다. 독자가 작자가 되어 작품을 필사하며 새로운 작품을 생성하는 과정 속에서 작품의 다양한 변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즉 같은 작품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텍스트 하나하나가 새로운 작품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숙향전>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전소설 중 하나로 조선후기 애정소설이다. 또한 당대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읽히는 작품으로 소설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전하는 <숙향전>이본은 국문본, 한문본 등 모두 포

1) 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p.230.

2) 이상택 외, 위의 책, p.86.

합하면 60종이 넘는다. 이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향유층이 두터웠으며 애독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이 서로 번역되며 새로운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는 소설사 속에서 국문소설에서 한문소설로 한역된 <숙향전>은 소설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문본 <숙향전>이본의 양상에 관한 연구는 그 의의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연구는 그 의미에만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의미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이본 중 대표본을 설정하고 그 대표본만을 위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다양한 독자들이 <숙향전>을 읽고 새로운 이해를 결합시켜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본은 텍스트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작품이다. 다양한 모습의 이본 중 한문본은 주로 필사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한문본은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문 구사층들이 숙향전을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하고 생성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국문본에 제한되어 있으며 한문본 이본의 차이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문본을 검토하는 작업은 한편으로는 <숙향전>의 이해를 심화시키며 확장시키는 과정이며 동시에 <숙향전>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살피는 것까지 이를 수 있다. 한문본 이본의 차이를 연구한다면 문학사적으로 <숙향전>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문본 이본 검토는 <숙향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살피는 과정이기도 하며 또한 한문 사용계층과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숙향전>의 모습까지도 나아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을 단일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읽는 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문학 향유자가 새로운 문학을 만들어내고 여러 작가들이 함께 일구어내는 역사라 볼 수 있으며 새롭게 변화하는 <숙향전>을 연구한다면 고전문학사의 심도 깊은 이해로 연

결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본의 차이가 있음에도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주목하지 않는 기존 연구경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문본 <숙향전>의 이본들을 나누어 계열별로 나타나 있는 의미의 차이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통하여 작품을 이해하고자 한다.

2. 研究史 檢討 및 研究 方法

앞서 언급하였듯이 <숙향전> 이본에 대한 연구는 향유되었던 바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 게다가 많은 이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한 두 사람의 연구자 외에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기존 <숙향전>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숙향전>의 환상적 성격이나 작품 속 구조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숙향전>은 다양한 이본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본 양상에 관련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었어야 하며 또 연구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이본 양상을 살펴보고 이본계열마다의 주제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본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자세하지는 않지만 이본 양상에 대하여 논의한 몇몇 연구를 중심으로 이전까지의 연구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숙향전>의 이본과 성격에 대하여 언급한 사람은 김태준³⁾이다. 김태준은 <숙향전>의 이본으로 국문본 2종과 한문본 1종을 언급하였는데 현재 전해지는 이본 중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 <숙향전>의 성격에 관하여서는 “대저 숙향전에서 이와 같은 몽환적 비현실적 부분을 제외한다면 아무것도 나머지가 없을 것이며 몽환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나 정염류에는 그다지 반갑지 아니하다.” 라고 언급하며 <숙향전>의 환상성을 지적하였다.

3) 김태준, 『增補朝鮮小說史』, 학예사, 1939.

김기동⁴⁾은 경판본, 활자본 2종과 한문필사본 3종 등 총 6종의 이본을 거론하였지만 이본의 대비와 확장 등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다. 그는 <숙향전>을 도선소설의 대표 작품으로 보았으며 중국소설인 <서유기>를 모방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적당한 주인공들이 지상에서 결연을 이루는 애정소설의 주제를 띄고 있으나 애정담 보다는 고행담을 더 많이 표현해 놓았음을 지적하였다.

김응환⁵⁾은 이본 연구에서 조금 더 진전된 논의를 하였다. 국문본 12종과 한문본 7종, 한문현토본 1종 등 총 20종의 이본을 구하여 검토하였으며 그는 크게 국문본, 한문판본, 한문필사본 세 계열로 나누고 한문본이 원본이며 국역되는 과정에서 국문본에 도교적 요소가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숙향전>은 후대의 논의에서 <숙향전> 한문본이 국문본을 저본으로 축약하여 줄거리 중심으로 서술하기도 하며 비현실적 요소들을 제거하기도 하는 등 여러 모습으로 한역된 것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상택⁶⁾은 <숙향전>을 신성소설의 대표 작품으로 보았으며 남녀 주인공들은 천상계의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여 움직이며 단지 주어진 상황을 통과하는 수동적인 인물로 보았다. 또한 신성성의 절대적임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지상적인 것을 빌려와 서술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조동일은 이상택과는 대조되는 주장을 하였다. 조동일⁷⁾은 <숙향전>을 영웅소설로 분류하였는데, 작품 안에 군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인공인 숙향이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 구조를 갖춘 점에서 영웅소설로 분류한 것이다. 또한 <숙향전>이 숙향의 전쟁고아라는 신세를 강조하며 현실논리도 강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언

4)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83.

5) 김응환, 「숙향전의 도교사상적 고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6) 이상택, 『한국 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한국고전소설의 이론』, 새문사, 2003.

7) 조동일, 『한국소설의이론』, 지식산업사, 1977;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2011.

급하였다. 또한 숙향은 좌절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인물로 신분의 장벽을 넘어 이선과의 사랑을 성취하였다고 하며 이에 <숙향전>이 인기를 모으며 여성의 수난과 투지를 다룬 소설이 정착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성현경⁸⁾은 고소설 중에서 적강구조를 기본 구조로 하는 작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중 <숙향전>을 적강소설의 원형으로 인정되는 작품이라 평가하였으며 숙명론적 세계관을 기본으로 하는 작품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이후 논의에서는 <숙향전>이 변신소설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그 후 이어지는 문장체 소설들에 영향을 미쳤으며 판소리체 소설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이상구⁹⁾는 이후 이본연구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다. 이상구는 국문본 22종, 한문본 10종, 한문현토본 1종, 일역본 1종 등 34종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국문본과 한문본을 비교하여 원본이 국문본임을 더욱 정확히 논의하였다. 이상구의 논의는 <숙향전> 이본에 대하여 종합적이며 총체적 검토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환상적 성격에 치우쳐져 있던 기존 연구와 달리 현실적 성격에 주목하여 <숙향전>이 당대의 사회현실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들어 현실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라 논의하였다. 주인공 숙향을 나약한 전쟁고아로서 현실세계에 놓여있는 인물로 보았으며 숙향에게 주어진 고난들을 현실적 성격의 고난으로 여겨 조선후기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 후에 <숙향전> 이본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검토한 연구자는 지연숙¹⁰⁾이다. 지연숙은 국문본 이본의 변이양상 연구를 제외하고 한문본 이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상구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한문본 이본에서

8)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출판부, 1989; 「숙향전 연구」, 『동아연구』 27, 서강대동아연구소, 1994.

9)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0) 지연숙, 「숙향전 한문본 연구」,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한문현토본이 포함된 하나의 계열을 배제하고 새로 발견된 한문본 1종인 숙렬전을 추가하여 총 10종을 검토하여 한문본의 계열을 정리하였다. 또한 계열 정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문본과 한문본의 비교를 통하여 한문본의 성격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기존의 연구 성과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문본 <숙향전> 이본의 계열을 분류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본 간 차이의 양상을 살펴 각 이본계열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을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문본 이본의 계열을 분류하여야 한다. II장에서는 본고에서 다룬 이본들의 서지사향을 살피고 대부분의 이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사단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부세의 논의에 따라 고유명사를 중심으로 이본들의 계열을 나누고자 한다. 또한 나누어진 계열간의 선후를 따져보고 계열내의 대표본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 때 이본의 손실과정이 오랜 시간을 거쳐 왔기에 각 이본 텍스트 하나하나의 선후관계를 따질 수는 없다. 따라서 계열간의 선후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 III장에서는 <숙향전>의 서사전개에 따른 계열별 특징과 인물 형상에 따른 계열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숙향전>의 서사는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지며 이에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골라 비교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는 인물의 형상에 따른 차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주인공인 숙향과 이선의 모습을 각각 살피고 환상적 성격의 대표적 인물인 마고를 보고자 하며 그 후 보조인물군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는 인물들을 살펴보자 한다. 같은 인물임에도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채 서술되기도 하며 미세하지만 의미있게 달라지는 서술이 드러나기도 한다. IV장에서는 앞서 살핀 서사전개에 따른 계열별 특징과 인물형상에 따른 계열별 특징을 가지고 <숙향전>이본의 계열별 주제의식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淑香傳> 異本の 資料現況

1. 異本別 書誌事項 및 敘事段落

<숙향전> 의 현전하는 이본을 살펴보면 국문방각본 1종, 국문필사본 49종, 한문필사본 11종, 한문현토본(구활자본) 1종이다.¹¹⁾ 총 60여종으로 매우 많고 다양하다. 논의에 앞서 본고에서 검토한 한문본 11종과 한문현토본 1종, 총 12종의 서지사항을 살펴보아 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본을 지칭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소장처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같은 소장처에 소장된 작품들은 분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소장처를 위주로 사용하였으나 간혹 이전 연구에서 표지에 쓰여 있는 필사년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일 때에는 기존의 연구를 받아들여 명칭을 정하기도 하였다.

① 少娥記 (정사본)

한문 필사본으로 겉면에는 “梨花亭記”, “丁巳春”이 적혀있으며 권수제는 “少娥記”로 되어있다. 매면 26행, 매행 23자 내외, 총 38면의 완결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

② 梨花亭奇遇記 (임신본)

한문 필사본으로 겉면에는 “壬申年八月日書”, “癸酉年正月上衣”, “梨花亭”, “梨花亭記”가 적혀있으며 권수제는 “梨花亭奇遇記”로 되어있다. 매면 24행, 매행 28자 내외, 총 36면의 완결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

11) 조희웅의 『古典小說異本目錄』(집문당, 1999.)을 살펴보면 한문현토본 5종이 확인된다. 하지만 목록에만 소개되어 있고 실물을 확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출판사만 다르고 동일본일 가능성이 크다.

③ 再世奇遇記 (국도가본)

한문 필사본으로 겉면에는 “淑香傳”이 적혀있으며 권수제는 “再世奇遇記”로 되어있다. 매면 20행, 매행 30자 내외, 총 47면의 완결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

④ 梨花亭奇跡 (국도나본)

한문 필사본으로 겉면에는 “淑香傳”이 적혀있으며 다음 면에는 “이화정괴적 속향전권지단나라”, “淑香傳 或曰梨花亭記”가 적혀있다. 권수제는 “梨花亭奇跡”으로 되어있다. 매면 24행, 매행 22자 내외, 총 44면의 완결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

⑤ 淑香傳 (한중연가본)

한문 필사본으로 겉면에는 “淑香傳 乙巳蜡月日改衣”가 적혀있으며 권수제는 “淑香傳”으로 되어 있다. 매면 18행, 매행 25자 내외, 총 84.면의 완결본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있다.

⑥ 淑香傳 (한중연나본)

한문 필사본으로 제목은 “淑香傳上下”로 되어 있으며 권수제는 “淑香傳”으로 되어 있다. 매면 20행, 매행 24자 내외, 총 53면의 완결본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있다.

⑦ 淑烈傳 (한중연다본)

한문 필사본으로 표제가 확인되지 않으며 권수제는 “淑烈傳”으로 되어 있으며 매면 24행, 매행 24자 내외, 총 41면의 완결본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있다.

⑧ 再世奇遇記 (고대가본)

한문 필사본으로 제목은 “再世奇遇記”라 되어 있으며 권수제 또한 “再世奇遇記”라 되어있다. 매면 20행, 매행 18자 내외, 총 53면의 낙질본이다. 고려대학교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은 처음부터 이선이 선계여행을 갔다가 봉래산에서 마고할미를 만나는 부분까지 실려있다.

⑨ 淑香傳 (고대나본)

한문 필사본으로 표지가 개장되어 있는데 개장된 표지에는 “淑香傳”이 쓰여 있으나 근래에 “古文選”이라는 표제가 제첨되어 있다. 이는 <숙향전>이 고문선의 이면에 필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수제는 “淑香傳”이라 되어 있으며 매면 18행, 매행 35자 내외, 총 36면의 완결본이다. 고려대학교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⑩ 淑香傳 (단대가본)

한문 필사본으로 매면 9행, 매행 22자 내외, 총 173면의 낙질본이다. 숙향이 명사계에서 후토부인을 만나는 부분부터 이선이 선계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부분까지만 남아있다. 이에 표제와 권수제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27 (보경문화사, 1991)에 영인되어 있으며 단국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⑪ 李太乙傳 (단대나본)

한문 필사본으로 제목은 “李太乙傳”이라 되어 있으며 매면 24행, 매행 20자 내외, 총 37면의 완결본으로 김동욱 소장본이다.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권50 (보경문화사, 1991)에 영인되어 있으며 단국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⑫ 漢文懸吐淑香傳 (한문현토본)

영인본으로 제목은 “漢文懸吐淑香傳”이라 되어 있으며 제목 아래에 “紹雲著”라고 적혀있다. 매면 13행, 매행 35자, 총 80면의 완결본이다. 회동서관(1916)본으로 『활자본고전소설전집』 권4 (아세아문화사, 1976)에 영인되어 있다.

각 이본의 서지사항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장처	표제	권수제 (내제)	본고 명칭	이상구 논문 명칭	지연숙 논문 명칭
국립중앙 도서관	梨花亭記	少娥記	정사본	정사본	국도관가본
	梨花亭奇遇記	梨花亭記	임신본	임신본	국도관나본
	淑香傳	再世奇遇記	국도가본	국도A본	국도관다본
	淑香傳	梨花亭奇跡	국도나본	국도B본	국도관라본
고려대학교	再世奇遇記	再世奇遇記	고대가본	만송본	고려대가본
	古文選	淑香傳	고대나본	고대본	고려대나본
한국학 중앙 연구원	淑香傳	淑香傳	한중연가본	정문연본	한중연가본
	淑香傳上下	淑香傳上下	한중연나본	나손B본	단국대다본
		淑洌傳	한중연다본	×	한중연나본
김동욱 소장본			단대가본	나손A본	단국대가본
	李太乙傳	李太乙傳	단대나본	이태을전	단국대나본
회동서관본		漢文懸吐淑香傳	한문현토본	한문현토본	한문현토본

서지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본들을 분류하여 같은 계열을 묶고 계열 내의 선후관계¹²⁾와 善本 및 대표본을 결정하고 그 후 <숙향전>

12) 계열내의 선후관계라는 것은 개별 텍스트의 선후 관계가 아니라 같은 계열 안에서의 각 텍스트들의 계열의 선후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 대표되는 사건전개 중 이본계열의 차이와 특징이 잘 나타나는 부분들을 살피고자 한다. 이에 앞서 <숙향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부분의 계열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서사단락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김전과 운수선생에 대한 서술
- ② 김전이 거북을 구해줌
- ③ 김전이 장희의 딸과 결혼하여 숙향을 낳음
- ④ 왕균이 숙향의 미래를 예언함
- ⑤ 전란을 만나 부모와 헤어짐
- ⑥ 반야산에서 도적을 만남
- ⑦ 유리결식하다가 명사계에서 후토부인을 만남
- ⑧ 장승상덕에서 10년을 의탁함
- ⑨ 사향의 음모로 쫓겨남
- ⑩ 표진강에서 투신하였으나 용녀와 선녀가 구해줌
- ⑪ 숙향이 적강 이유를 듣게 됨
- ⑫ 사향이 천벌을 받음
- ⑬ 노전에서 화재를 만났으나 화덕진군이 구해줌
- ⑭ 마고할미를 만나 이화정에서 살게 됨
- ⑮ 숙향이 꿈 속에서 이선을 만나 반도와 계화와 옥지환을 줌
- ⑯ 꿈 속 일을 수놓아 파니 조장이란 자가 자수를 사감
- ⑰ 이상서 부부는 이선을 낳았음
- ⑱ 이선이 꿈 속에서 천상을 경험하고 숙향이 수 놓은 것을 얻음
- ⑲ 이선이 숙향을 찾아다니다가 마고할미를 만남
- ⑳ 이선의 고모인 여부인의 주관 하에 이선과 숙향이 결혼함
- ㉑ 이상서가 낙양수령 김전에게 숙향을 죽이라 함

- ㉒ 장씨의 꿈에 숙향이 나타나 호소함
- ㉓ 숙향이 옥중에서 풀려남
- ㉔ 마고할미가 죽음
- ㉕ 청삽사리가 숙향을 도움
- ㉖ 숙향이 이상서부부를 만나 며느리로 인정받음
- ㉗ 이선이 급제하고 돌아와 숙향과 재회함
- ㉘ 양왕이 자신의 딸 매향과 혼사를 재촉하자 이선이 형주자사가 되어 떠남
- ㉙ 숙향이 표진강에 제를 올리고 화덕진군에게 보은을 함
- ㉚ 정렬부인이 된 숙향이 장승상 부부와 재회함
- ㉛ 김전이 표진강 용왕으로부터 숙향의 행적과 재회에 대해 듣게 됨
- ㉜ 숙향이 부모와 재회함
- ㉝ 양왕이 혼인을 요구하나 이선이 거절함
- ㉞ 황태후의 병환에 이선이 선약을 구해옴
- ㉟ 이선이 황태후를 살리고 매향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함
- ㊱ 이선, 숙향, 매향이 화복을 누리다가 하늘로 올라감

2. 系列 分類 및 善本 抽出

현전하는 <숙향전> 이본들은 많은 차이를 지니면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각각 하나의 작품으로 성립되어왔다. 본고 논의의 목적은 한문본 <숙향전> 이본의 계열별 차이를 통하여 소설사 내에서 달라지는 이본의 양상과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이본 텍스트들을 계열 별로 분류하고 저본이 되는 이본 계열과 각 계열의 대표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계열 간의 철저한 비교를 통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한다.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작품이 필요하며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 비교하여야 한다. 이때 기준으로 삼는 작품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여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텍스트를 찾아야 하는데 고전소설은 작자나 창작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며 필사본의 경우 필사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국문본과 한문본 모두 전하는 작품이라면 원작의 표기문자를 찾아 살펴야 한다. <숙향전>의 경우가 그러하다. 먼저 <숙향전>의 창작시기는 17세기 말로 추정되며 원작 표기문자는 한글로 알려져 왔다.¹³⁾ 이에 국문본에서 가장 善本이자 저본이 되는 작품을 기본형으로 삼아 비교하고자 한다. 이상구의 연구에 따르면 <숙향전>의 이본 중 선본으로 보는 이본은 경판본, 이대본, 정문연A본이다. 이들은 고유 단락을 갖추고 있으며 세부 내용도 충실하게 전개되어 있다. 이 중 경판본은 이대본이나 정문연A본에 비해 축약과 윤색의 정도가 심하며, 이대본은 정문연A본에 비해 일정하게 축약되어 있고 문장 또한 매끄러운 편이지만 나타난 오류들이 내용을 압축하고 문장을 매끄럽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에 경판본과 이대본의 계열이 원본에 가깝다고 여기기는 어렵다. 이에 정문연A본의 문장은 다소 거칠지만 국문 완결본 중 가장 풍부하며 전반적으로 가장 온전한 내용을 구비하고 있다.¹⁴⁾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받아들여 정문연A본¹⁵⁾을 국문본의 대표본으로 삼아 논의하고자 한다.

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금 남아있는 이본이나 내용을 살펴볼 때, 국문으로 생성된 작품이 한역된 작품임을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秋齋集』, 『象胥記聞』, 『만화본춘향가』 등의 기록을 볼 때 최소한 17세기 말 이전에 지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김응환, 「숙향전의 도교사상적 고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조희웅, 「숙향전 형성연대 재고 -일본측 자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12집, 한국고전문학회, 1997;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참고)

14) 이상구, 위의 책, pp.145-147.

15) 정문연A본은 표지의 제목은 “숙향전 권지단”이라 쓰여 있으며 “淑香傳”이 한문으로 병기되어 있다. 권수제는 표제와 같이 “숙향전 권지단”으로 되어 있으며 매면 12행, 매행 29자 내외로 총 107면의 완결본이다.

대부분의 이본들은 원본이 되는 저본을 보고 베껴 쓰는 필사의 방법이 주가 되며 마찬가지로 <숙향전> 대부분의 이본 또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옮겨서 쓴 필사본의 형태이다. 처음 모본을 제외한다면 다수의 이본은 원본을 베껴서 쓰는 필사의 방법에 의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필사작업은 반드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 필사자는 필사 당시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 피로에 따라 본의 아닌 과오를 범하게 될 뿐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원문을 자의적으로 고치기도 한다.¹⁶⁾ 이본연구에서는 필사자의 과오인 오자나 탈자 또는 필사자에 의해 교정된 모습을 통하여 선후관계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작품의 중요한 의식세계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비해 필사자의 자의적인 변이는 작품의 성격과 방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사자의 가치관이나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충분히 작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오자나 탈자, 교정된 모습을 통하여 이본의 변화된 양상을 살펴기보다는 탈락되거나 추가, 혹은 변화된 내용의 비교를 통하여 연구한다면 작품의 의식세계에 대하여 더욱 타당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여러 텍스트를 계열별로 나누고 그 후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글본이 한문본으로 번역된 것이 분명한 사씨남정기의 연구를 살펴보면 고유명사를 가지고 이본의 텍스트를 나눈 방법이 있다. 이본의 고유명사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 계열을 쉽게 나눌 수 있다. 이는 음표문자인 한글이나 로마자로 기록된 중국이름들을 한자로 복원하는 과정의 전형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¹⁷⁾

16)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p.5.

17) D. 부세, 「원문 비평의 방법론에 관한 小考 : 「남정기」와 「구운몽」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97, p.166.

이본들 간 고유명사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정사본	국도가본	고대가본	고대나본	임신본	국도나본	단대나본	한중연다본	단대가본	한중연가본	한중연나본	한문현토본
金珠	金珠	金珠	金珠	金珠	金珠	金珠	金珠	낙질부분	金銓	金鈿	金鈿
王勻	王均	王勻	王勻	王勻	王勻	王勻	王勻		王均	黃鈞	黃鈞
盤若山	盤若山	盤若山	盤若山	盤惹山	盤若山	盤若山	盤若山		盤若山		
蒼石	答石	蒼石	蒼石	蒼石	蒼石	蒼石	蒼石	蒼石	蒼石		
趙赤	趙赤	趙赤	趙赤	趙赤	趙赤	趙赤	趙赤	趙赤	趙赤		
趙章	趙章	趙章	趙章	趙章	趙章	趙章	趙章	趙章	趙章	趙章	趙章
后土	后土	后土	后土	后土	后土	后土	后土	后土	后土		
梁王	梁王	梁王	梁王	梁王	梁王	梁王	梁王	梁王	燕王	燕王	

표를 살펴보면 계열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가장 차이가 나는 이본은 한중연나본과 한문현토본이다. 이 두 이본은 동일하게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으며 이에 고유명사 또한 나오지 않아 하나의 새로운 계열로 분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단대가본과 한중연가본이 다른 이본들과 비교하였을 때 김전의 이름, 양왕의 이름 등이 차이가 나기에 또 다른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나머지 이본들에서의 고유명사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차이는 글자 모양의 유사성으로 생긴 차이라고 볼 수 있기에 하나의 계열이라 할 수 있다. 총 11종의 한문본은 이처럼 뚜렷하게 계열이 분리되며 그 결과 세 계열을 형성한다. 다음과 같다.

- Ⓐ 정사본, 임신본, 국도가본, 국도나본, 고대가본, 고대나본, 단대나본, 한중연다본
- Ⓑ 한중연가본, 단대가본
- Ⓒ 한중연나본, 한문현토본

먼저 각 계열내의 개별 텍스트 간의 선후관계를 알 수 있다면 이본들이 변화하는 양상에 대하여 더욱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 텍스트에 필사년도가 기입되어 있지 않으며 필사자 또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별 텍스트간의 선후관계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가령 가장 나중에 필사된 작품이 필사년도를 따졌을 때는 가장 늦게 만들어졌지만 내용을 살핀다면 가장 먼저 쓰여진 작품일 수도 있으며, 한 계열에서 다른 계열로 영향을 받아 나왔지만 영향을 준 계열의 대표본이 가장 늦게 필사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본의 계열이 먼저일 수는 있어도 개별 텍스트가 먼저 필사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별 텍스트의 선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열의 선후를 가지고 서술하도록 하겠다.

먼저 A계열을 살펴보자. A계열은 가장 많은 이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정사본과 임신본에는 쓰여있는 구절이 고대가본과 단대가본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나머지 이본에는 모두 있는데 국도나본에만 누락되어 있는 구절도 있다. 또한 다른 이본에는 모두 있는데 정사본에만 누락되어 있는 구절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A계열 내의 이본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현존하는 A계열 이본 7종은 대체로 여러 경로의 전사과정을 거쳐 생성된 것이며 전사과정에서 각각 약간의 변모와 더불어 몇몇 구절들이 누락되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¹⁸⁾ 따라서 현존하는 이본들을 가지고 선후관계를 파악하고 先本을 추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善本을 추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전의 선행연구를 참조하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A계열의 善本을 정사본으로 삼아왔으며 필자도 받아들여 본고에서 또한 정사본을 대표본으로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기존논의와 다른 점은 국도가본이다. 이본 연구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상구는 국도가본(국도A본)¹⁹⁾을 또 다른 계열의 하나로 두어 총 네 가지 계열로 분리시켰다. 그러나 국도가본을 살펴보면 A계열의 대표본인 정사본과 몇 글자 외에는 거의 다른 곳이 없이 구성되어 있으며 A계열의 다

18) 이상구, 위의 책, p.93.

19) 괄호 안은 이상구의 논의에서 사용된 명칭이다.

른 이본들과 비교해보면 내용적인 면에서 같은 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구는 논의에서 국도가본(국도A본)과 한중연나본(나손B본)이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며 국도가본이 정사본(정사본)을 저본으로 하고 한중연나본(나손B본)을 참고하여 새롭게 개작한 이본이기에 다른 계열로 분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90%이상이 정사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5%만이 한중연나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살펴보도록 하겠다.

有宋南陽 金瑒 貧而賢 嘗餞友於盤河 見漁者獲龜 悶其死 以衣易之 放于水
(정사본, 1면)

有宋南陽郡 有金生者 名瑒字子光 其先人卽雲水先生也 世守清白 而生亦賢 貧安而樂道者也 嘗餞友於盤河 見漁者之獲龜 悶然其死 以衣易之 放于深水 焉 (국도가본, 1면)

이 부분은 작품의 가장 첫 부분인 김전에 대한 서술 부분이다. 밑줄 친 부분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 다른 계열처럼 보인다. 하지만 뒤의 부분을 살펴보면 정사본과 거의 일치하며 서사단락과 내용 또한 동일하다. 따라서 국도가본과 정사본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가 계열을 분리할 정도로 크지 않으며 매우 사소함을 알 수 있다. 비록 한중연나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계열로 분리시킬 만큼의 큰 차이가 아니기에 [A]계열에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B]계열은 [A]계열과 분량의 차이가 크다. 즉 서사줄기와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하여 내용상 크게 개작된 이본은 아니지만 부연과 장식이 많아 분량이 늘어난 특징을 공유하는 이본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善本을 알아본 후 뒤에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러한 [B]계열의 善本여부는 계손 논의되어 오고 있다. 그 전에 먼저 저본이 되는 계열의 이본을 알아보도록 하자. 현존 이본

중 ㉔계열은 단대가본과 한중연가본 총 2종이며 두 이본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두 이본을 비교해보면 한중연가본에 몇몇 오류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오류들은 필사자가 필사 도중 ① 몇 구절을 다른 문맥 속에 삽입한 경우, ② 자구 배열이 잘못되어 문맥이 통하지 않는 경우, ③ 구절이 반복되어 필사된 경우, ④ 글자 모양의 유사성으로 잘못 필사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네 가지 오류들은 모두 필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오류이며 한중연가본은 이러한 오류가 많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단대가본의 저본이 되는 어떠한 이본 중 하나를 보고 필사한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善本은 다르다. 단대가본은 앞뒤가 낙장본이며 속향이 명사계에서 후토부인을 만나는 부분부터 이선이 선약을 구하여 경사로 돌아오는 부분까지만 존재하며 이외의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있다. 한중연가본은 단대가본의 필사도중 오류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단대가본이 先本이지만 훼손과 격락을 고려할 경우 한중연가본이 善本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중연가본을 대표본으로 설정하여 논의하며 동시에 단대가본 또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㉕계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문현토본은 1916년 회동서관에서 간행한 것으로 간행연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한중연나본은 연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㉔계열을 살펴보았을 때와 같이 誤字를 통해 그 이본계열의 선후관계를 추정해 보아야 한다. 한문현토본에 간혹 오자가 보인다. 살펴보도록 하겠다.

鈿 一日載酒送客 至泮河水 見漁夫數人 共得一金龜 將欲燒而食之. (한중연나본, 1면)

鈿이 一日에 載酒客客홀시 至泮河水호니 見漁夫數人이 共得一金龜호야 將欲燒而食之어늘 (한문현토본, 1면)

이 부분은 김전이 반하물가에 손님을 보내기 위하여 나갔다가 어부들이 거북을 잡아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다. 두 문장은 한 글자 외에는 모두 같게 쓰여져 있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한중연나본에는 ‘送客’이라고 쓰여진 것이 한문현토본에는 ‘客客’이라고 되어있다. 이는 한문 현토본의 오자인데 ‘送’자와 ‘客’자의 모양이 흡사하여 식자(植字)하는 중에 생긴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문현토본에는 글자모양의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가 나타나 있다. 이는 글자의 유사성으로 식자 도중 생긴 듯한 오 자이므로 한문현토본이 후대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토가 달려 있는데 굳이 현토를 빼고 필사할 이유가 없기에 한문현토본을 후대본으로 볼 수도 있다. 한중연나본의 계열 중 어느 하나가 한문현토본으로 전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淑香傳> 漢文本 異本 系列의 特性 比較

1. 事件 展開와 系列別 特徵

앞서 제시한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숙향전>의 사건전개는 크게 숙향의 이야기, 숙향과 이선의 결연 이야기, 그리고 이선의 이야기로 나뉘며 주요 서사는 숙향의 탄생, 숙향이 겪는 다섯 가지 고난, 숙향과 이선의 결연, 숙향의 부모상봉, 이선의 선계여행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이번 장에서는 계열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골라 비교하며 이 부분이 각 계열마다 사건의 전개 속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淑香의 誕生

먼저 작품 서두의 숙향이 탄생하는 부분이다. 탄생부분은 주인공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으로 주인공의 모습이 형상화 되며 앞으로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주인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숙향전>에서 숙향의 탄생부분은 숙향이 초월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숙향은 천상에서 적강한 인물로 가난하지만 현명한 성품의 김전의 딸로 태어난다. 숙향이 태어날 때 사건전개를 살펴보면 이본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볼 수 있기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 하루는 날씨가 화창했는데 갑자기 오색구름이 집을 둘러싸더니 전에 없던 향내가 집 안에 진동했다. 집안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기고 있는데 해가 저문 뒤 문득 공중에서 두 선녀가 내려와 등불을 켜고 김전

에게 “이제 월궁항아께서 오시니 그대는 집 안의 더러운 것을 없애시오” 하고는 두 선녀가 장씨 방으로 들어가니 김전이 황홀하여 즉시 시녀에게 집 안을 가장 정결하게 청소하라고 분부했다. 이윽고 집 안에서 기이한 광채가 일어나더니 그 빛이 하늘까지 이르고 향내가 진동했다. 김전이 혹시나 장씨가 죽을까 두려워 가만히 방안을 엿보니 장씨가 바야흐로 아이를 낳자 선녀들이 아기를 향수로 씻겨 장씨 옆에 누이고 바빠 나갔다. 김전이 종적을 알려고 했지만 선녀들은 홀연히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즉시 방안으로 들어가보니 장씨가 기절해 있었다. 장씨를 깨워 자리에 앉히니 마치 자다가 깬 듯 했다. 집 안의 향기가 삼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지 않으니 아기의 이름을 숙향이라 짓고 자는 월궁선이라 했다.²⁰⁾

㉠ 과연 이 달에 태기가 있어 산달에 이르니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였고 곧 4월 초파일이었다. 그날 밤 두 소녀가 바깥으로부터 와서 생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늘 밤에 부인께서 내려올 때이니 청컨대 그대는 잠시 피해있으라” 하고는 장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생은 뜰을 청소하고 엄숙하고 단정하게 기다릴 뿐이었다. 향취가 진동하여 문 틈으로 엿보니 이미 분만하였고 두 소녀가 향기로 아이를 씻기고 나가더니 홀연히 보이지 않았다. 태어난 지 세 달이 지났는데도 향기가 사라지지 않아서 이름을 숙향이라 하고 자를 월궁선이라 하였다. ²¹⁾

20) 일일은 일기 순화하니 홀연 오식구름이 집을 둘러싸고 네없든 향기 집안에 진동하기를 가중상히 괴니히 녀어쓰니 일모후의 문득 공중으로서 선녀두리 날여와 등화를 췌고 김전다려 왓 니제월궁항애 오시니 그대는 집안의 더러운거슬 업시하라 하고 장씨방으로 드러가거늘 김전니 황홀하여 즉시 시녀를 명하여 집안을 가장 정결니 슈쇄하여써니 이윽고 가중의 그이흔 광채하늘의 다하고 향니진동하기를 김전니 더욱송구하여 장씨 형여 죽을가 두려워가마니 여허보니 장씨 바야흐로 아회를 낫커늘 그 선녀 두리 아기를 향수의 씻겨 누이고 밧비 나가거늘 김전니 종격을 알여 하니 밧셔 간되 업느니라 즉시 드러가 장씨를 보니 괴절하여져늘 췌와 안치니 자다가 깬 듯하더라 가중의 향니삼삭가지 그치지 안니하기로 일흠을 숙향니라하고 자는 월궁선니라 하다 (정문연A본, 2면)

21) 果是月有娠以至臨產 香氣滿堂 卽四月初八日也 是夜二小女 自外而來 謂生曰 今夕夫人 降生之辰 請君少避 仍入張氏之房 生灑掃門庭 肅整待候而已 香臭振越 窺視戶隙 旣而分娩 而二小女以香 湯洗兒而出 因忽不見 產過三月 香氣不散 因名曰淑香 字曰月宮仙 (정사본, 2면)

㉠계열은 국문본을 전체적으로 축약한 모습이다. 국문본에서는 김전이 시녀에게 집안을 청소하라며 지시하였다고 나오지만 정사본에서는 축약시켜 시녀가 등장하지 않으며 김전이 청소한 것처럼 서술된다. 또한 국문본에서는 김전이 문틈으로 방안을 엿본 이유에 대하여서 장씨가 죽을까 두려워서 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계열에서는 단지 향취가 진동하여 엿본 것처럼 축약되었다. 또한 두 선녀들이 사라진 후의 장면에 대하여서도 국문본에서는 김전이 기절해 있는 장씨를 깨우니 자다가 깬 듯 하다며 설명해 놓았지만 ㉠계열에서는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다. 국문본과 비교했을 때 ㉠계열에서 생략된 부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서사전개와 중심 줄거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국문본을 대거 축약하였으나 서사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특징을 다시 한 번 찾아볼 수 있다. 같은 장면일 때 ㉡계열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그 달에 과연 임신하여 태임의 태교를 열심히 하였고 강원의 해산달이 되니 때는 곧 (훤손부분) 이날 밤 삼경에 기이한 향기가 집에 가득하고 두 소녀가 밖으로부터 와서 생에게 이르기를 “내려오실 때이니 원컨대 그대는 잠깐 피해 있으라” 하고는 장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훤손부분) 뜰을 청소하고 엄숙하고 단정하게 기다릴 뿐이었다. 잠깐 동안 향취가 은은히 코에 느껴지고 아이가 우는 소리가 있어서 문틈으로 보니 곧 두 소녀가 향탕에 여자아이를 씻기고 있었으며 장씨는 이미 분만하였다. 씻기를 마치고 나가서는 홀연히 보이지 않았다. 집안에 향기가 세 달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아서 이름을 숙향이라 하였고 꿈에 달을 품었기에 자를 월궁선이라 하였다. 22)

22) 月果有娠 勤太任之胎教 逮姜嫄之彌月 時則 (‘任’은 ‘妊’의 오자임) (훤손부분) 是夜三更異香滿室 二少女自外而來 謂生曰 降辰也 願君少避焉 仍入張氏房 (훤손부분) 灑掃門庭 整肅待候 少頃香臭離鼻 呱呱有聲 從門隙看 則二少女以香湯洗女兒 而張氏以已爲分娩矣 洗畢而出回忽不見 家中香氣過了三月不散 故名之曰淑香 夢協懷月故字之曰 月宮仙 (한중연가본, 2면)

이 부분에서 ㉠계열은 전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또한 드러나고 있다. 앞 부분을 보면 태임과 강원이 등장한다. 태임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로 태교를 처음으로 실천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며 강원은 유향의 열녀전에 등장하는데 주나라 시조인 후직의 어머니로 덕이 높고 자식을 키우는 도리를 다함으로 칭송되었던 인물이다. 이 부분은 전고 뿐 아니라 또한 대구를 맞추어 서술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계열에 비해 많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 서로 관련이 없는 이본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러한 전고사용이나 부연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계열과 매우 흡사한 한자 배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도록 하겠다.

㉡ 果是月有娠以至臨產 香氣滿堂 卽四月初八日也 是夜二小女自外而來 謂生曰 今夕夫人 降生之辰 請君少避 仍入張氏之房 生灑掃門庭 肅整待候而已 香臭振越 窺視戶隙 既而分娩 而二小女以香湯洗兒而出 因忽不見 產過三月 香氣不散 因名曰淑香 字曰月宮仙 (정사본, 2면)

㉢ 月果有娠 勤太任之胎教 逮姜嫄之彌月 時則 (훼손부분) 是夜三更異香滿室 二少女自外而來 謂生曰 降辰也 願君少避焉 仍入張氏房 (훼손부분) 灑掃門庭 整肅待候 少頃香臭離鼻 呱呱有 從門隙看 則二少女以香湯洗女兒 而張氏以已爲分娩矣 洗畢而出回忽不見 家中香氣過了三月不散 故名之曰淑香 夢協懷月故字之曰 月宮仙 (한중연가본, 2면)

숙향의 탄생부분의 원문이다. 굵게 처리된 부분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가 다른 어느 하나를 보고 썼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한자의 배열이 흡사하다. 즉 두 계열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 ㉢계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계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㉔ 해산달이 되어 태어나니 곧 딸이었다. 태어나는 날에 기이한 향기가 집에 가득하여 이름을 숙향이라 하였다.²³⁾

㉔계열은 국문본을 비롯한 다른 한문본 계열들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숙향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내려와 장씨의 분만을 도우며 숙향을 씻기는 두 소녀의 존재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는 ㉔계열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㉔계열은 국문본을 포함한 다른 이본들과 전반적인 텍스트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텍스트에 나타나 있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대거 축약하거나 삭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때문에 두 소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숙향을 씻기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한 ㉔계열의 작자는 이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㉔계열에서는 숙향이 고난을 당할 때 마다 숙향을 돕는 신이한 인물들이 삭제되어 등장하지 않기도 하며 고난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신이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현실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로 바뀌어 등장하기도 한다. 뒤에서 더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 다섯가지 苦難

<숙향전>의 줄거리 중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인 부분은 숙향의 고난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고난장면은 <숙향전> 작품의 분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심서사이기도 하며, 천상세계의 인물이었던 숙향이 적강한 후 천상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들로 <숙향전> 의식세계의 중심인 환상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숙향은 천상세계에서 월궁소아였다. 그런데 숙향은 천상에서 태을선군과 애정을 나누었고 그 죄로 적강하게 된다. 그리하여 김전의 딸로 태어난 숙향은 지상세계에서

23) 彌月載誕 乃女子也 降之日 異香滿室 故名曰淑香 (한중연나본, 2면)

다섯가지 고난을 겪는다. 이 고난들은 천정결연을 이루고 다시 천상세계로 올라가기 위하여 꼭 치루어야 하는 대가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때마다 신이한 존재가 나타나 숙향이 고난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숙향전>의 중요한 줄거리이다. 첫 번째 고난으로는 숙향이 다섯 살에 전란이 일어나 피란을 가다가 부모에게 버려지고 그후 도적들에게 발견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다. 하지만 그 도적 중 한 사람이 숙향을 불쌍히 여기고는 마을에 데려다주어 숙향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고난으로는 도적들에게서 구하여진 후 유리걸식하다가 명사계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다. 숙향은 부모를 잃고 추위와 굶주림에 고생하는데 이 때 짐승들이 나타나 숙향을 돕는다. 그리고 명사계에 들어가서도 후토부인을 만나 세 가지 고난이 남아있음을 듣게 되고 목숨을 구한 뒤 장승상 댁에 가게 된다. 세 번째 고난으로는 포진강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다. 장승상댁에서 10년을 의탁하여 수양딸로 살았는데 사향이라는 못된 종이 숙향을 모함한다. 이에 숙향은 장승상댁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후 포진강에 이르러 자결하고자 투신한다. 이 때 용녀와 선녀들이 나타나 숙향을 구해주는데 이 때 숙향은 용녀와 선녀들에게 자신이 적강한 이유와 이선 또한 적강하여 지상세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듣게 된다. 네 번째 고난으로는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는 사건이다. 용녀와 선녀들의 도움으로 살아난 숙향은 정처없이 떠돌다가 갈대밭에 이른다. 해가 저물어 갈대밭에서 잠을 청하는데 이 때 갈대밭에 큰 불이 나 숙향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불을 다스리는 신인 화덕진군이 나타나 숙향을 구해주며 동쪽으로 가라고 알려준다. 다섯 번째 고난으로는 숙향이 옥살이를 하게 되는 사건이다. 네 번의 고난을 겪은 숙향이 마고할미를 만나 이화정에 의탁하여 살게 된다. 이화정에서 수를 놓고 팔며 살던 숙향은 꿈에 요지의 잔치에 갔다가 이선을 만난다. 이선 역시 대성사 부처를 따라 요지의 잔치에 갔다가 숙향을 만나는 꿈을 꾀다. 이러

한 꿈을 끈 숙향은 요지의 잔치 모습을 수로 놓아 팔고 이에 수를 얻게 된 이선이 이화정에 이르게 된다. 마고할미의 여러 시험을 거쳐 만나게 된 이선과 숙향은 이선의 고모인 여부인의 주선 하에 결혼을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선의 부친인 이상서가 숙향을 죽이라 명령하고 이에 숙향은 옥에 갇혀 옥살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총 다섯 번의 고난을 겪는 숙향의 이야기는 <숙향전>의 중심서사라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각 계열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난들 중에서도 차이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는 두 번째 고난인 유리걸식하여 후토부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다. 숙향은 전란이 일어나 부모에게 버림받게 된다. 이 때 숙향은 도적들에게 발견된다. 이것이 숙향의 첫 번째 고난인 도적들에게 죽음을 당할 액이다. 이 때 도적 중 한 사람이 숙향을 살려주고는 사람들이 오가는 마을에 두고 간다. 마을에 버려진 채 숙향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고난을 당한다. 살펴 볼 부분은 이렇게 버려져 유리걸식하는 숙향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다가 신이한 짐승들의 도움을 받고 또 명사계에 후토부인을 만나는 부분이다. 명사계는 죽음의 세계다. 따라서 명사계에 들어가는 것은 숙향에게 있어서 매우 큰 고난이라 할 수 있다.

㉔ 이때 숙향이 마을 사람과 새를 모두 잃고 혼자 울며 다니다가 멀리 바라보니 산 위에 사람들이 오가는 듯 했다. 그리하여 산을 향해 갔지만 사람은 없고 길은 험하기만 했다. 날은 저물고 배가 고파 오도 가도 못하고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는데 문득 파랑새가 꽃을 물고 날아와 손등에 앉았다. 숙향이 그 꽃을 먹으니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맑아졌다. 그 새가 날아가기에 새를 따라 두어 고개를 넘어가니 어떤 여인이 나와 숙향을 안고 큰 궁전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머리에 화관을 쓰고 칠보로 단장한 부인이 황금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숙향을 보더니 의자에서 내려와 절하면서 말했다. “동쪽 의자에 앉으소서” 숙향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기만 하자 그 부인이 또 말하기를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더러운 물을 많이 마셔 정신이 변했으니 이것을 잡수소서. 이것은 신선이 먹는 경액이나이다” 하고 시녀로 하여금 구슬잔에 이슬차를 담아 옥쟁반에 받쳐 숙향에게 드리게 하였다. 숙향이 그것을 받아 마시니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부모와 이별하고 고생한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하여 몸은 비록 아이지만 마음은 어른과 같아 머리를 들고 그 부인에게 사례하며 말했다. “하늘나라에서 지은 죄가 무거워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생하게 된 몸을 이렇듯 후히 대해주시니 매우 감사하나이다” 그 부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선녀께서 저를 알아보시겠나이까?” “정신이 아득하여 몰라보겠나이다” “이땅은 명사계요 저는 후토부인이라고소이다” (중략) 사슴이 멈춰선 곳은 바로 남군 땅 장승상 맥의 동산이었다.²⁴⁾

Ⓐ 이 때 숙향이 들판에서 노숙을 면치 못하고 넘어지는데 금수가 있어 구하고 도와주니 호랑이의 기름과 한병의 날개 같아서 겨우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여 죽지 않고는 한 곳에 이르니 큰 궁전이 있었는데 마치 황제가 거하는 듯 하였다. 화관을 쓴 부인이 숙향을 맞이하여 집에 들어가니 숙향이 두려워하며 울려고 하니 부인이 마시게 하던 경장이었다. 숙향의 마음과 정신이 되살아나서 오히려 어른의 뜻처럼 부인에게 사례

24) 이적의 숙향니 마을 사람과 시를 다 일코 혼자 울며 단이다가 멀리 바라보니 산우회 사람이 왕니호거늘 산을 브라고 가더니 산은 첩첩호고 길흔 험흔디 날은 저물고 비는 곱푸물견디지 못호야 남글의지호고 너머졌찌니 문득 청피날아와 꽃출 물고 손등의 안꺼늘 숙향니 그 꽃출 먹으니 눈니열이고 정신니 씩씩호더라 그 시를 짜라 두어 곳들 너머가니 혼녀인니나와 안하 드러다가 큰 전후의 노호니 일위부인니머리의 환관을 쓰고 칠보단장을 호고 황금교위에 안즈짜가날려와 숙향를 마즈 팔를 드러 읍호여 왈 동편교위에 안즈쇼셔 숙향니아무리 홀쭉물나 울기만 호니 그 부인왈 선녀인간의 날려와 더로운 물을 만히 차셔 정신니 변호여시니 이겨슬 잡수쇼셔 이는 신선먹는경익인니이다 드피여 시녀로 호여곰 만호잔의 호박디를바쳐 이슬차출 드리거늘 숙향니 바다먹으니 단마시향괴롭고 천상일니 완연호야 인간의 날려와 부모이별 고심호는 일이 분명호야 몸은 비록 아희나 마흠은 어른갓트여 머리를 드러 부인에게 사례왈 천상의 최중호와 인간의 날려와 곤케되온 몸을 이러듯 후디호시니 지극감스호여이다 그 부인니 쇼왈 선녀날를 아라보시리잇가 숙향왈 정신이 아득호와 아지 못호리로쇼이다 부인왈 이짜흔 황천사계요 나는 후토부인이라고쇼이다 (중략) 이 짜흔장승상 덕 동산이라 (정문연A본, 13-18면)

하며 말하기를 “물과 불에 빠져 분명 죽게 되었는데 부인이 불사르는 것에서 구하고 빠진 것을 건져주시니 은혜가 하늘과도 나란합니다. 감히 묻습니다. 이 곳은 어떠한 곳이며 주인님은 누구입니까?” 하니 부인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곳은 명사계이고 저는 후토신입니다” 하였다. (중략) 해가 지고 숲이 어두워지니 향할 바를 알지 못하여 곤히 꽃떨기에 의지하여 잠이 드니 이는 곧 장승상 집이었다.²⁵⁾

㉠ 이때 마을이 쓸쓸하고 황폐하여 사람과 연기가 끊어졌다. 숙향이 아침에도 먹지 못하고 저녁에도 먹지 못하여 한치 한치 앞으로 나아가며 무성한 풀 숲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짐승이 와서 보호하는 것이 마치 호랑이가 돌봐주고 새들이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 같아서 겨우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여 죽지 않았다. 산길을 다니다가 우연히 한 곳에 이르니 궁궐이 단청이 화려하게 빛나고 바라보니 마치 제왕의 궁궐과 같았다. 그 가운데에 화관을 쓴 부인이 맞이하여 집으로 들어가니 숙향이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워 울고자 하였으나 손으로 자리를 묶으며 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부인이 경장 한 그릇을 권하니 비로소 이에 마음과 혼이 안정되어 밤에 동이 트는 것 같고 자다가 깬 것 같았다. 마침내 꿰어앉아 옷깃을 펴며 사례하고 말하기를 “감히 묻건대 이 곳은 어떠한 곳이며 주인님은 누구입니까?” 부인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곳은 명사계이고 저는 후토신입니다” 하였다. (중략) 잠깐사이에 달이 지니 숲이 어두워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곤히 꽃밭에 의지하여 잠이 드니 곧 장승상 뒷 마당이였다.²⁶⁾

25) 此時 淑香草行露宿 未免顛仆 而或有禽獸救護者 如於菟之穀 寒氷之翼 僅免飢寒而不死 至一處 有大宮殿 如帝王居 中有花冠夫人 迎之入室 淑香羞恐欲啼 夫人飲之瑠漿 淑香之心魂蘇省 猶若成人之志 謝於夫人曰 入水蹈火 自分填壑 夫人救焚拯溺 恩澤齊天 敢問此地何處 貴主何氏 夫人笑曰 乃地冥司界 妾即后土神也 (중략) 日落林黑 不知所向 困依花叢而眠 此乃張丞相宅也 (정사본, 4-5면)

26) 是時 村落蕭條 人烟斷絕 淑香朝不食夕不食 寸寸前進 彷徨於豐草茂林之間 或有鳥獸之來護者 如於菟之乳穀 鳥翼之覆稷 僅免飢寒而不死矣 行行山路 偶至一處 宮闕壯麗 丹青照耀 望之 若帝王之宮闕 中有花冠夫人 迎之入室 淑香且恐且羞 欲啼欲哭 以手括席 不知攸爲 夫人勸飲瑠漿 一椀 始乃心醒魂定 若夜之曙 如睡之覺 遂跪敷衽而辭曰 敢問此地何處 貴主何人 夫人笑曰 地

유리걸식하며 떠돌던 숙향은 짐승들이 와서 도와주어 목숨을 이어가다가 명사계에 들어가게 된다. 숙향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한 채 명사계에 들어가고 후토부인을 만나게 된다. 이에 후토부인은 숙향에게 경장을 마시게 하여 숙향이 적강한 사실과 남아있는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숙향의 생명을 구한다. 후에 숙향은 살아서 명사계로부터 나와 장승상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 부분의 주된 줄거리이다.

국문본과 ㉠, ㉡계열을 살펴보면 앞서서 살펴본 특징과 같이 국문본에 비하여 ㉠계열은 내용을 줄거리 중심으로 축약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계열은 ㉠계열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숙향이 추위와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크게 서사전개가 변하거나 탈락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계열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 숙향이 하루는 마을에서 혼미하여 길을 방황하니 차가운 바람은 강을 거스르고 대낮에 서쪽에 숨음에 나무를 의지하여 비처럼 눈물을 흘리니 홀연히 큰 새가 날개로 덮어주어 밤이 되니 가거늘 다음날 아침에 숙향이 사방을 돌아보았는데 멍하니 따라갈 곳이 전혀 없었는데 홀연히 하얀 사슴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었으나 숙향을 등에 태워 가거늘 숙향이 비록 심히 두렵고 놀랐지만 이내 양 손으로 털을 움켜 의지하고 가는 곳을 맡겼더니 여러 봉우리와 언덕을 넘어 한 곳에 이르니 집들이 땅에 펼쳐져 있고 큰 저택이 구름처럼 이어져 있었으니 이는 곧 장승상 응한의 집이니 늙어서 벼슬에서 물러난 자였다. 27)

是冥司界 而妾卽后土神也 (중략) 俄而月落林黑 罔知攸往 困倚花叢而睡 此地乃張丞相宅後園也. (한중연가본, 4-5면)

27) 淑香一日 迷失村閭 彷徨途路 寒風浙瀝 白日西匿 依樹仆地 涕泣如雨 忽有大鳥 覆翼之 達夜而去 明朝 淑香 回顧四望 無所從 忽有一白鹿 不知自何來而背負淑香而去 淑香雖甚怖懼 乃以兩手 攀扶毛鬣 任其所之 累越峰崗 行之一處 閭閻撲地 甲宅 連雲 此乃張丞相應漢之家而年老致仕者也 (한중연나본, 5-6면)

㉔계열에서는 후토부인이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명사계조차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㉔계열의 중심이 되는 특징으로 환상적 면모를 제거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㉔계열에서는 환상적 인물인 후토부인을 만나는 숙향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으며 후토부인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작자는 명사계조차 등장시키지 않고 서술을 이어가 장승상택에 이르게 하고 있다.

숙향의 고난 부분에서 계열별의 차이가 심화되어 나타나는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네 번째 고난부분이다. 숙향이 겪는 네 번째 고난은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는 사건이다. 장승상택에서 의탁하며 살던 숙향은 사향의 음모로 쫓겨나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포진강에 빠져 죽고자 한다. 하지만 이 때도 용녀와 선녀들이 나타나 숙향을 구해주고 이에 갈대밭에서 잠을 자고자 하던 숙향이 화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화덕진군이라는 신이한 존재가 나타나 숙향을 구하여 주고 마고할미를 만나도록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숙향전>의 서사전개이지만 계열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²⁸⁾

㉔ 이때 숙향이 홀로 가는데 갈대밭이 어둡고 아득하였고 큰 들과 갈대숲이 나아가기 마땅한 바가 없었다. 해가 저물어 의지하고 쉬었다. 갈대숲이 한밤중인데 빠른 바람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들에 불이 크게 났다. (중략) 홀연히 어떤 노인이 지팡이를 잡고 와서 말하기를 “무엇이길래 여자가 깊은 밤에 갈대밭에 있는가? 어찌하여서 왔는가?” 하니 숙향이 고하여 말하길 “난리가 나서 부모를 찾고 동서로 다니다가 이와 같은 형상에 잘못 빠졌으니 노인에게 빌기를 남은 목숨을 구제하여 주소서” 하니 노인이 말하기를 “아아 나 또한 별안간 저 일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불길이 심히 급하고 어지러우니 구하기 위해서 너는 의복과 행리를 다

28) 국문본과 ㉔, ㉕계열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㉔계열의 탈락 부분을 살피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㉔계열만 인용한다.

벗어서 땅에 버리고 위에 기대라..” 하고는 그 아이를 지고 하얀 부채를 한번 휘두르니 바람과 불이 돌며 꺼졌고 의복은 이미 재와 끄트러기가 되었다. 갈대밭의 밖으로 엮고 나와서 옷 소매를 찢어서 주며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여자가 벗고 갈 수 없으니 이로써 몸을 가리면 길거리사람들의 웃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중략) “나는 이내 남천문 밖의 화덕진군이다. 너가 만약 내가 아니었으면 화재를 면하기 어려웠고 삼백리 갈대밭 또한 나갈 수 없었다. 서로 볼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는 홀연히 보이지 않았다. 이때 동쪽에서 바야흐로 밝아져서 몸이 다 벌거벗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져 길가에 숨었다. 홀연히 어떤 늙은 할미가 지나가다가 물어 말하기를 “나이가 장성한 여자가 벗고 길을 다니니 어떤 죄를 지었는가? 부모에게 내쳐졌는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다가 드러나 쫓기고 있는가? 화적을 만나 몸을 발가벗기고 도망하였는가?” 하였다. 29)

㉞ 홀연히 푸른 옷을 입은 여인이 연엽주를 타고 능파곡을 부르며 물결을 따라 내려오다가 급히 속향을 안아 배 안에 두어 가되 비바람 같이 빨라 순식간에 천리를 가더라. 속향이 당황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니 잠깐 사이에 곧 멈추고 속향을 안아 길가 나무 아래에 두거늘 속향이 마음으로 기이하게 여겨 일어나 절하고 감사하며 말하길 “첩의 타고난 운명이 험하고 야박하고 세상에서 고생만 하여 전란으로 부모를 잃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길러졌다가 사향의 참소로 쫓겨나니 날은 저물었는데 갈 길은 멀어 푸른 물결에 몸을 던져 죽기를 각오하였사운데 그대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나의 남은 목숨을 구하셨나요?” 하였다. 푸른 옷을 입

29) 此時 淑香獨行蘆田 茫茫大野 蘆林無際 適值日暮 依息蘆中 半夜 疾風四起 野火猝發 (중략) 忽有老人 拄杖而來曰 何物女子 深夜蘆中 胡爲乎來哉 淑香告曰 亂離餘生 尋覓父母 跋路東西 誤陷於此 伏乞老君 救濟殘命 老人曰 唉 我亦暫知伊事矣 然火勢甚急 難以爲救 汝之衣服行李 盡爲脫下 棄于地上 仍負其兒 而白羽扇 一番揮翻 風火旋滅 而衣服已成灰燼矣 負出於蘆林之外 而裂給衣袖曰 多年女子 不可裸行 以此掩身 可免路人之笑矣 吾乃南天門外火德眞君也 爾若無我 則火災難免 而三百里蘆田 亦不得出也 相見有日矣 因忽不見 此時 東方已白 一身盡赤 不能前進 隱于路邊 忽有老姬過去 而問曰 年長女子 裸體行路 無乃得罪 而見黜於父母歟 窺人財寶 現露被逐歟 逢着火賊 赤身逃免者歟 (정사본, 9-10면)

은 여인이 답하기를 “첩은 곧 동해 용왕의 둘째 딸입니다. 옛날 30년 전에 첩이 곧 금 거북이 되어 반하 물에서 놀다가 고기 그물에 걸려 어부에게 잡혀 장차 불 위에 올라가 타죽는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고귀한 사람을 만나 목숨을 술과 바꾸어 죽에 목숨을 얻어서 살던 곳으로 돌아오니 은혜가 뼈에 새길만 합니다. 목숨 걸고 은혜를 갚고자 하였는데 지금 남자를 보니 참소에 원통하여 푸른 물결에 몸을 던져 장차 물고기배에서 장사지내려고 할 때 정위³⁰⁾의 영을 따를까 두려워하여 감히 엮주로 와서 기다리다가 여기에서 받들어 구하니 엎드려 원컨대 남자는 이곳에서 기다리면 늙은 할미가 올 것입니다.” 하고 홀연히 보이지 않거늘 숙향이 그 기이함을 극진히 여기더니 잠깐사이에 과연 늙은 할미가 지팡이를 잡고 와서 숙향의 곁에 앉았다.³¹⁾

㉠계열과 같이 국문본이나 다른 한문본계열에서는 위에 제시한 순차단락의 순서를 지켜 중심 줄거리가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계열에서는 앞서 언급한 서사단락의 ㉠,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바로 포진강에서 투신하여 청의녀에 의해 구하여진 숙향이 바로 마고할미를 만나는 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계열에서는 화덕진군의 존재뿐만 아니라 화재를 만나는 고난의 내용 또한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부분에서 화덕진군이라는 신이한 인물의 도움을 탈락시켰으며 중심 줄거리가 되는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는 사건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는 여주인공인 숙

30) 중국 고대로부터 전하는 환상의 새. 여름을 지배하는 염제의 딸이 동해에 빠져 죽어 그 몸이 변하였다고 함. 늘 서산의 나무와 돌을 입으로 물어 동해를 메우려 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31) 忽有青衣女子 乘蓮葉舟 歌凌波曲 順流而下 急抱淑香 置之舟中而去 速如風雨 瞬息千里 淑香惶感叵測 須臾乃止 抱扶淑香 置於路傍樹下 淑香心以爲異 起拜而謝曰 妾賦命崎薄 值世鈍蹇 因亂離親 依人見養 被讒見黜 日暮途遠 投身緣波 視死如歸 子何爲者而濟我殘命乎 青衣女答曰 妾乃東海龍王之第二女也 昔在三十年前 妾卽化爲金龜 出遊泮河水 橫罹漁網 爲漁夫所獲 將加炭火之上 不免炮烙之刑 幸遇尊人 換命以酒 賴以得生 返於舊淵 恩深刻骨 誓死圖報 今見仙娘 枉被簧口之譖 投身碧波之中 將致魚腹之葬 恐隨精衛之靈 故敢以葉舟來待 奉濟于此 伏願仙娘待之于此 有老嫗來焉 因忽不見 淑香極其有異 俄而果有老嫗 扶杖而來 坐於淑香之側 (한중연 나본, 10면)

향이 화재를 만나 벌거벗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지만 ㉠계열에서는 이처럼 주인공을 비속화 시키는 부분을 제거하였으며 이는 고난 가운데에서 주인공이 겪는 수치적인 면모를 제거하여 속향의 도덕적인 모습과 고귀한 모습이 강조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상적이며 신이한 존재를 전혀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중심사건인 고난조차 삭제시킨 모습이 ㉠계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신이한 사건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색하여 현실적인 모습으로 필사한 부분도 드러난다. 마지막 고난인 속향의 옥살이 부분이다. 속향은 네 번의 고난을 겪고 마고할미를 만나 이화정에 의탁하여 살아간다. 그리고 꿈에서 천상세계의 이선을 만나게 되고 이선 또한 대성사 부처를 따라갔다가 천상세계의 속향을 만나게 된다. 이에 이선은 여러 고생을 하며 속향을 찾아오게 되고 둘은 여부인의 주선아래 결혼을 하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선의 부친인 이상서는 매우 화가 나 속향을 죽이려 하며 낙양수령인 김전에게 명하여 속향을 옥에 가둔다. 이에 속향의 마지막 고난인 옥살이가 시작되는 것이다.³²⁾

㉡ 수령이 말하길 “비록 너의 죄가 없음을 알지만 또한 내가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고는 집장으로 곤장질하게 하였는데 팔이 무거워 곤장을 들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지만 모두가 그러하였다. 수령이 마음으로 심히 이상하게 여겼고 또한 차마 보는 앞에서 죽일 수가 없어 장차 물에 던져 죽이고자 하였다.³³⁾

㉢ 수령이 말하길 “상서의 노함이 바야흐로 커서 재촉하는 편지가 이르렀으니 비록 너의 죄가 없음을 알지만 또한 내가 스스로 마음대로 할

32) 국문본과 ㉡, ㉢계열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계열만의 다른 부분을 살피는 것이므로 ㉡계열을 대표로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33) 令曰 雖知汝之無罪 亦非我之自由 因令下杖 執杖臂重 不能舉杖 遞手皆然 令心甚怪訝 而且不忍面殺 將欲投水而殺之 (정사본, 20면)

수 있는 바가 아니다.”하고는 이어서 나졸들에게 장을 치라 명하니 곤장을 맨 자는 팔이 무거워서 (...)34) 한편으로는 차마 보는 앞에서 죽일 수가 없어 지금 우선 형을 멈추고 다음날 장차 물에 던지고자 하였다.35)

㉔ 현령이 또한 차마 슬프고 불쌍하여 부채를 들어 얼굴을 가리고 매우 화를 내며 큰 목소리로 말하길 “모름지기 엄한 심문을 속히 하라” 하니 곤장을 잡은 하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차마 하지 못하여 서로 사양하기를 오래하거늘 현령이 다시 그것을 재촉하니 부득이하여 강하게 곤장을 쳤다. 속향이 형장을 이기지 못하여 머리를 드리우고 눈을 감고 소리가 목구멍에 있어 말하길 “아버지여 어디 있는가! 어머니여 어디 있는가! 거의 다 죽게 된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구나!” 하였다. 가는 목숨이 실과 같아 오히려 급히 기절하지 않으나 때리는 것이 베는 것 같아 아픔을 차마 버티어 감당하지 못하고 기절하여 숨이 끊어질 듯 하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36)

이 부분은 수령인 김전이 이상서의 명령에 따라 속향을 잡아들여 상서 댁의 아들을 유혹하였다며 속향을 곤장으로 치라 명하는 장면이다. 국문본과 ㉒, ㉓계열에서는 곤장질하는 하인이 곤장을 들어 속향을 치고자 하는데 팔이 무거워져 곤장을 들지 못한다.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들게 하여도 같은 모습이었다. 이에 속향을 곤장질할 수가 없었으며 이에 속향은 한 대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이며 환상적인 모습으로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㉔계열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현실적이며 신이한 장면들을 대

34) 원문에 연문(衍文)이 있는 듯함. 여타 이본을 고려할 때 “곤장을 들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지만 모두가 그러하였다. 수령이 마음으로 심히 이상하게 여겼고” 정도의 내용이 빠진 것으로 보임.

35) 令曰 尙書之方怒意盛 囑禮洵至 雖知汝之無罪 亦非余之自由 因令羅卒下杖 荷杖者臂重 一邊不忍面殺 今姑止刑 明將投水 (한중연가본, 43면) (‘囑’는 ‘囑’의 오자임. ‘禮’는 ‘札’의 오자임)

36) 知縣 亦不忍哀憐 舉扇障面 強怒大聲曰 湏速嚴鞫 執杖下人 含泪不忍 相讓久之 知縣 更促之不得已 強杖焉 淑香不勝刑杖 垂頭閉目 聲在喉中而語曰 父兮焉往 母兮安在而不顧垂死之命耶 微命 如縷 猶不能急絕 敲扑若害 痛不忍支堪 氣絕喘奄 幾至死境 (한중연나본, 30면)

거 탈락시키는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계열에서는 곤장을 들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장면을 현실적으로 그려놓고 있다. 곤장을 들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숙향이 곤장질 당하고 이에 기절까지 하는 현실적 모습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숙향을 때려야 하는 하인들이 숙향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현실적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3) 李仙과 淑香의 結緣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숙향과 이선의 결연 부분이다. <숙향전>은 애정소설로 <춘향전>, <홍부전>, <배비장전> 등 다른 문학 속에 숙향의 이야기가 나타난다. 그 중 특히 배비장전에서는 배비장이 삼국지, 구운몽, 임경업전을 제치고 <숙향전>을 골라 읽는 장면이 나온다.³⁷⁾ 또한 전기수가 소설을 구연할 때도 <숙향전>이 주요 레퍼토리였다는 점³⁸⁾들을 통하여 당시 <숙향전>이 큰 인기를 누렸음을 알 수 있다. 애정소설로의 <숙향전>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연 두 주인공인 숙향과 이선의 결연이라고 할 수 있다. 숙향이 천상에서 죄를 짓고 적강하게 된 이유도 이선과의 사랑 때문이었고 지상에서 고난을 겪는 이유도 이선과의 결연 때문이다. <숙향전>의 중심서사인 고난이라는 사건과 더불어 결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계열별로 결연 부분의 서사전개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이선과 숙향의 결연부분 순차단락과 줄거리를 자세히 살펴본 후 인용하도록 하겠다.

37) 신해진, 「배비장전」, 『朝鮮後期 世態小說選』, 월인, 1999, p.293.

38) 傳奇叟 叟居東門外 口誦諺課稗說 如淑香, 蘇大成, 沈淸, 薛仁貴等傳奇也 月初一日坐第一橋下 二日坐第二橋下 三日坐梨峴 四日坐校洞口 五日坐大寺洞口 六日坐鍾樓前 溯上既 自七日沿而下 下而上 上而又下 終其月也 改月亦如之 而以善讀 故傍觀匝圍 夫至最喫緊甚可聽之句節 忽默而無聲 人欲聽其下回 爭以錢投之曰 此乃邀錢法云. (조수삼, <奇異>, 『秋齋集』 7)

- ⑱ 이선이 꿈 속 요지연의 잔치를 수놓은 비단을 사게 됨
- ⑲ 이선이 숙향을 찾아다니다가 마고할미를 만남
- (a) 요지연 수본이 이화정에서 난 것을 안 이선이 이화정에 찾아감
- (b) 할미가 이선에게 숙향이 병인 형상이라며 거짓말을 함
- (c) 그럼에도 이선은 천정을 말하며 숙향을 만나고 싶어함
- (d) 이선에게 할미는 남양 김전의 집과 장승상 댁에 찾아가 보라고 말함
- (e) 이선은 김전의 집, 장승상댁, 표진, 노전을 거쳐 이화정으로 다시 돌아옴
- ⑳ 이선의 고모인 여부인의 주관 하에 이선과 숙향이 결혼함
- (a) 할미가 숙향에게 이선이 병인 형상이라며 거짓말을 함
- (b) 숙향은 할미에게 요지의 구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것을 말함
- (c) 숙향과 이선이 여부인의 주선 하에 혼인을 함

순차단락과 세부줄거리를 살펴보면 이선과 숙향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살필 수 있다. 바로 지상에서의 모습과 관계없이 천상에서의 인연이 되는 증거만 있다면 결연을 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할미가 숙향과 이선에게 같은 거짓말을 하지만 천정연분에 따른 결연에 대한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 계열별로 이러한 부분들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할미가 말하기를 “이 소녀는 과연 신분이 낮은 사람이 되어 나이가 겨우 다섯 살 때에 참혹하게 병란을 만나 그 부모를 잃고 타향을 떠돌면서 거지질을 하다가 길에서 도적을 만나 칼에 이미 한 팔을 잃고 표진에 빠졌다가 양쪽 눈을 모두 멀었으며 갈대밭에서 불을 만나 온 몸이 오그라들고 문드러지고 잘못되었고 후토에게 잘못하여 귀 또한 멀게 되

었는데 이와 같이 병든 소녀는 물어서 어찌하겠습니까?” 하였다. (중략) 이선이 말하기를 “하늘이 정하면 사람을 이기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원컨대 할미는 이름과 사는 곳을 가리켜 보여주셔서 오직 이것에 힘 써 보도록 하소서” 하였다. (중략) 이 때 노구가 생을 보낸 후에 숙향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그 소년을 보았는가? 못 보았는가? 이는 곧 천상의 태을이고 곧 지금은 이위공의 아들이다. 그러나 한 쪽 눈이 하얗게 얼룩졌고 한 쪽 팔이 굵어 짧으며 한 쪽 발이 짧아 절뚝거린다. 비록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신이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 이것은 흠이 된다.” 하였다. 숙향이 말하길 “과연 이가 태을이라면 비록 병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다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진실로 (태을이) 아닌 것이 두렵습니다” 하였다.(중략) 숙향이 말하길 “한 번 고생했다고 어찌 믿겠습니까? 다만 나의 구슬(가락지)을 가진 자여야 옳을 것이니 바야흐로 본 후에야 나의 몸을 허락할 것입니다” 하였다.³⁹⁾

㉔ 할미가 말하기를 “소녀는 천한자로 태어나 그 성품이 노둔하고 어려서 동서를 알지 못하고 매우 세상물정을 모릅니다. 나이가 겨우 다섯 살 때에 참혹하게 병란의 화를 만나 그 부모를 잃고 타향을 떠돌면서 거지질을 하다가 반야산의 적의 칼을 만나 이미 한 팔을 잃고 표진의 큰 물에 빠져 또한 맹인이 된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노전에서서는 화신의 재앙을 만나 왼쪽 넓적다리가 문드러지고 오그라들었으며 후토의 큰 재앙을 범하여 오른쪽 귀가 멀었습니다. 이와 같은 병폐한 사람인데도 비록 지금 보기를 원한다면 장차 어찌하고자 함인가?” 하였다. (중략) 이선이 말하기를 “지극한 정성이 있으니 하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부모가 비

39) 姬曰 此女果在於下賤之人 年纔五歲 慘遭兵亂 失其父母 流落丐乞 逢賊道上 爲刀所傷 已失一臂 溺於漂津 兩目俱盲 遇火蘆田 遍體爛縮 誤犯后土 耳亦不聽 如此病女 問之何用 (중략) 生曰 天定勝人 父母不可 則有死而已 願姬指示名居 惟力是觀之 (중략) 此時 老姬送生之後 入言于淑香曰 見其少年否 此乃天上之太乙 卽今李魏公之子也 然一目點白 一臂曲短 一足暫蹇 雖未害爲全身 亦不爲完人 此爲欠也 淑香曰 果是太乙 則雖爲病人 未爲不可也 但恐其非眞也 (중략) 淑香曰 一番行苦 何以取信 但得我珠者 是也 方見然後 可許吾身也 (정사본, 15-16, 18면)

록 기빠하지 않아도 장가들고 장가들지 않는 사이에서 생사를 결정하고
 얻고 얻지 못하는 사이에서 존망을 판단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모두 있으니 끝내는 어찌 마음을 돌리는 도리가 없겠는가?”
 하였다. (중략) 화설이라. 노구가 생을 보낸 후에 들어가 숙향에게 이르
 기를 “잠깐 저 소년은 곧 천상의 태을진인이고 인간세상에서는 위공의
 아들이다. 그러나 한쪽 눈이 하얗게 얼룩졌고 한쪽 다리가 절뚝발이다.
 비록 다행이 나병 걸린 사람보다는 낫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
 를 수는 없으니 이는 흠이라 할 수 있다.” 하였다. 숙향이 말하길 “과연
 이가 태을이라면 비록 나병 걸린 사람보다 심하다 할지라도 가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어찌 한쪽 눈, 한쪽 팔, 한쪽 다리의 작은 흠으로 논하
 겠나요? 다만 진짜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중략) 숙향이 말하길
 “한번 여행의 피로움으로 잠깐 애썼다고 해서 또한 단정 지을 수 없습니
 다. 오직 나의 구슬을 가지고 있는 자 여야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을 것
 입니다. 그래야 바야흐로 나의 몸을 허락할 것입니다.” 하였다.⁴⁰⁾

위의 ㉠와 ㉡에서 인용된 부분은 서사단락 ㉑-(a),(b)와 ㉒-(a),(b)이다. 살
 펴보면 ㉠계열과 ㉡계열의 서사전개는 거의 흡사하다. 다만 ㉡계열이 약간
 의 부연과 묘사가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해볼 수 있
 는 것은 이선은 숙향이 병인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천정연분이라면 결연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숙향 또한 이선이 병인이라고 할지라도 천정연
 분의 증거인 가락지 구슬을 이선이 가지고 있다면 결연하는 것이 옳다고 이

40) 姫曰 少女卑賤所生 魯鈍其性 少而不識東西 長而莫辨菽麥 年才五世 慘遭兵禍 失其父母 流落
 丐乞 逢盤若之賊鋒 已斫一臂 溺瓢津之鯨波 又盲壹目 遭蘆田回祿之災 左股爛縮 犯塋土太歲之
 殃 右耳聾塞 如此病廢之人 求之往牒而無聞焉 今雖得見 將焉用哉 (중략) 生曰 至誠所在 天心
 可回 父母始雖不悅 而決死生於娶不娶之間 判存妄於得不得之際 則愛子之心 人皆有之 終豈無
 回心之道耶 但聞少娥所在處 則雖胼手而胝足 十生而九死 必也得見而後已也 (중략) 話說 老姬
 送生之後 入謂淑香曰 俄者少年 乃是天上之太乙真人 人間之魏公寵子 然而一目点白 一股跛蹇
 雖得幸免於厲人 亦不可謂之完人 是可欠也 娘曰 果是太乙 則雖甚於厲人 未爲不可 何論一目一
 臂一股之微疵哉 但恐其真贗 (중략) 娘曰 一幅丹青之依微 猶不可以攷信 一番行役之艱勞 亦不
 可以斷定 惟得吾之環珠者 十分無疑 而方 可許以吾身也 (한중연가본, 33-34, 39면)

야기하고 있다. ㉠와 ㉡계열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순차단락과 세부 줄거리의 서사가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즉 천정연분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이선이 숙향을 얻기 위하여 김전의 집에 갔다가 장승상의 집을 거쳐 포진과 노전을 모두 들러 다시 이화정으로 돌아오는 부분도 서술되어 있다. 이 부분은 마고할미가 이선이 숙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이선이 숙향을 얻기 위하여 고생하며 정성을 다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계열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 마침내 동침하니 기쁨을 알만하였다. 다음날 이선은 숙향을 눈여겨 자세히 보고 숙향은 이선을 거듭 보니 이선은 또한 요지의 태을 같았고 숙향은 완전 옥루의 소아 같았다. 이선이 숙향에게 이르기를 “지난 가을 7월 보름에 꿈에 요지의 누대에 들어갔으니 남자가 어찌 계화를 받들어 준 자가 아니겠는가?” 하니 숙향이 답하길 “제가 또한 같은 날 꿈을 꾸었으니 남군이 과연 구슬을 주워 얻은 자이군요” 하였다. 이선이 곧 주머니 속에서 구슬을 꺼내거늘 숙향이 받아 그것을 보니 모습이 완전히 같아 의심할 것이 없었다. 다시 옛 가락지에 붙이니 알맞은 것이 부절과 같거늘 서로 보고 크게 놀라 말하길 “이는 실로 하늘이 정한 것이오 일은 우연이 아니니 이로 말미암아 보면 인간만사가 다 이미 정해져 있다” 하였다.⁴¹⁾

㉢계열은 다른 계열들과 다른 모습으로 서술되어 있다. 세부순차단락을 살펴보면 ㉠-(b)부터 ㉡-(c)까지의 모든 서사가 누락되어 있다. 즉 ㉢계열에서의 숙향과 이선은 서로의 천정연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결연하는 모

41) 遂與同枕 喜可知矣 旦日 李仙 熟視淑香 淑香 重睹李仙 仙 亦似瑤池太乙 淑香 完如玉樓之素娥 李仙 謂淑香曰 去秋七月望 夢入瑤池樓 娘子 豈非桂花 奉獻者歟 淑香 答曰 妾 亦有同日之夢 郎君 果是真珠 拾得者耶 李仙 卽囊中 出一枚珠 淑香 受而視之 字畫 完如無疑 還着舊環 若合符契 相視大驚曰 此實天定 事非偶然 由此觀之 人間萬事 摠是前定 (한중연나본, 27면)

습을 보이며 동침 후에야 서로의 가락지를 확인하며 천정연분이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결연할 때 이선의 고모인 여부인이 등장하지도 않으며 마고할미의 주선 아래 결혼을 한다. 이처럼 ㉠계열은 다른 계열들과 달리 매우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父母와의 相逢

숙향은 네 번의 고난을 겪고나서야 이선과 결연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선의 부친 이상서가 낙양수령이자 숙향의 친 아버지인 김전에게 숙향을 죽이라고 명한다. 김전은 이에 숙향이 자신의 잃어버린 친 딸임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숙향을 옥에 가두고 심문한다. 이것이 숙향의 다섯 번째 고난이다. 그 후 숙향은 옥에서 풀려나고 이화정 마고할미와 청삼사리의 도움으로 이상서부부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수놓는 실력의 뛰어난으로 인해 며느리로 인정받게 된다. 이 때 이선은 형주자사가 되고 숙향은 정렬부인이 되어 남편을 따라 형주로 가는 도중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도와준 짐승들과 장승상 부부를 찾아가 은혜를 갚는다. 그 때 김전 또한 반하물가를 지나며 용왕에게 숙향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숙향은 양양에 가서 부모를 상봉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또한 계열 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이에 노인이 정색하며 말하기를 “네가 숙향을 꼭 찾으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김전이 말하기를 “제가 늦게야 딸자식을 하나 얻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잃었사옵습니다. 생각하면 천지가 망극하여 눈물로 세월을 보내옵더니 오늘 하늘이 도우셔서 성인을 만나게 되었나이다. 천만번 빌건대 숙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하니 노인이 화를 내며 말했다. “네가 숙향을 그토록 애타게 찾으려 하면서 무슨 까닭으로 반야산

에 버리고 갔으며 낙양 옥중에 갇혔을 때는 만나보기는커녕 도리어 남의 말을 듣고 기어이 숙향을 죽이려 했느냐? 그래놓고 이제와서 어찌하여 늙은이에게 어린 자식이 보채듯 치근대며 찾아내라 하느냐?” 김전이 또 절을 하며 말하기를 “반야산에서는 난리 중에 우리 부부가 다 죽게 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간 것이며 낙양옥중에서는 그 아이의 이름과 나이는 같았으나 내 자식이 분명한지 알지 못해 찾아보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사정이 어찌 되었건 제가 어질지 못해 일어난 일이오니 제발 이제라도 분명히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제가 노인의 자식이 되어서라도 은혜를 갚겠나이다” 하며 애걸하니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정하신 일이니라. 나는 이 물을 지키는 용왕인데 옛날에 내 자식이 거북이가 되어 반하물에 갔다가 어부의 그물에 걸려 죽게 된 일이 있었도다. 그때 그대가 구해 내 자식이 살아났기에 나도 은혜를 갚으려고 여기에 온것인데 만일 그대의 정성이 지극하지 않았다면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했느니라. 그대는 내말을 잘 들어보라 숙향이 그 사이에 다섯 번 죽을 액을 겪고 이제야 귀하게 되었으니 조만간 숙향을 만나게 되리도다. 그러나 그대가 숙향이 고생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비록 숙향을 만나도 그대 자식인 줄 모르리라. 숙향을 만나거든 좀 전에 내가 한 말을 다 물어보아서 내 말과 같으면 그대 자식인 줄 알라” 42)

42) 노인니 정식왕 네숙향을 부디 어더보려 호는 뜻은 무삼일고 김전왕 늦기야 혼팔을 어덧삼 써니 사랑호는 마음니 진치못호여서 일허샤오니 생각호오면 천지방극호와 조석의 눈물노 지니옵써니 생각호오면 천지방극호와 조석의 눈물노 지니옵써니 오늘날 하늘리도오샤 성인를 만나오니 천만 번 빌건디 숙향을 츠즈보게 호옵소서 노인니 증니여 변식호고 같오되 네 숙향을 그다지 츠즈려 호면 무삼 일노 반야산의셔 발리고 가고 낙양 옥중의 갖쳐실제 만나보지 안니코 도로혀 남의 말을 듯고 기여히 죽이려 호다가 인제와셔 늘근날다려 폐로이 지근디며 차차니라 호고 어린 자식 보치듯호는다 김전니 또 지비 왕 반야산의 발리고 가옵기는 난중의 부체 다 죽기기로 망극의 바리고 간 일니오며 낙양 옥중의 갖쳐실 제는 일흠과 나흔 갓스오되 써난지 오리오미 분명니 너자식인줄 찌닷지 못호와 파자보지 못호오문 나의 어지지 못호은 일니온니 제발 분의 니제나 분명니 가르쳐 주옵시면 노인의 자식 되야 은혜를 갓스오리이다 호고 익걸호겨늘 그 노인니 웃고왈 네 그릇호 죄 안니라 하늘리 정호신일니라 과년 나는 니 물직퀸 용왕일너니 저즈게 너자식니 거복니 되여 반하물가의 갔다가 어부의 그물의 걸려 죽게 되여 써니 그디구호물 힘입어 살아시니 또한 나도 □□□□□□그디 은혜를 갓고자 호는고로 상제게 엇잡고 숙향니 만나볼 길을 같으치라 왔써니 만일 그디정성니 지극지 안니호던들 일으지 못홀났다 호고 같오되 그디는 자셔히 드리보라 숙향니 그 사이에

㉠ 노인이 말하길 “무릇 속향을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니 태수가 말하기를 “자식을 사랑하는 정은 금수에게도 오히려 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리오?” 하니 노인이 말하기를 “그러한데 산골짜기에 버린 것은 가이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함정에 빠트려 감옥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가이 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기로 말미암아 구하지 않고 길가의 노인에게 물으니 말하는 자는 고생이고 듣는 자는 비웃을 뿐이다” 하였다. 태수가 말하길 “실로 밝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니 부끄러움이 간절하며 후회가 심합니다.” 하니 노인이 말하길 “이는 그대 홀로의 잘못이 아니라 또한 하늘의 계획이다. 나 또한 이 물의 신으로 덕으로 덕을 갚는 것이니 그대가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결국에는 자사의 처가 될 것이니 전의 말은 다 희롱한 것일 뿐이니 마땅히 한번 웃음거리로 삼아라” 하고는 홀연히 보이지 않더니 그 말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였다.⁴³⁾

㉡ 노옹이 말하길 “네가 속향을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 대답하길 “ 금수 또한 그런 마음이 있거늘 하물며 사람인데도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날짐승이나 들짐승만 못하니 어찌 사람의 도리로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노옹이 말하길 “지금 너는 네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를만하다. 반야에 버리고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고 할 수 있는가? 살육에 빠트리고 자식을 그리워한다고 할 수 있는가? 버리고 함정에 빠트리는 것은 너로 말미암은 것이지 남으로 말미암은 것이겠는가? 네가 반구저기할 수 없는데 길가의 사람에게 구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비록 염치가 없다고 해도 듣는 자가 도리어 그만

다섯번 죽을 익을 지니고 이제야 귀히 되었으니 조만의 만나보련이와 다만 속향니 국기든 일을 몰나시니 비록 속향을 만나도 그대 자식인줄을 아직 못홀 거시미 속향을 만나거든 말을 다 무려 보아서 너 말과 갓거든 그대 자식인 줄을 알나 (정문연A본, 151-153면)

43) 老人曰 夫欲見淑香者 何心 太守曰 愛子之情 禽獸尚有 況於人乎 老人曰 然則 棄之山谷 可謂愛乎 陷之殺獄 可謂情乎 由於己而不爲 反求視諸路邊之人 言之者苦 聽之者笑 太守曰 實由不明 而耻切搖尾 悔甚噬臍 老人曰 此非獨君之過 亦天之數也 我亦此水之神 而以德報德者也 君豈知之 早晚爲刺史妻者 是也 前言戲之耳 當付一笑 因忽不見 細錄其言而藏之(정사본, 30면)

못하겠는가?” 태수가 말하기를 “실로 어질지 못하고 밝지 못함 때문에 하나있는 딸도 지킬 수 없었으니 뱀이 꼬리를 무는 것보다 부끄러움이 간절하고 사향노루가 배꼽을 깨무는 것 보다 후회가 심합니다.” 노옹이 말하기를 “이것은 실제로 숙향이 하늘이 정한 운수와 관련된 것이지 어찌 다만 그대의 과실때문이겠는가? 조만간 형주자사의 아내가 되는 자가 바로 숙향이다. 곧 서로 보게 될 것이니 어찌 꼭 지나치게 상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이 물의 신인데 지난 날 구해준 잉어는 동해 용왕의 딸로 또한 나의 이제(姨弟)이다. 나에게 덕으로 덕을 갚는 마음이 있어서 이에 앞길을 알려주노라. 전의 말은 다 희롱한 것일 뿐이니 마땅히 한번 웃음거리로 삼아라” 하고는 홀연히 보이지 않았다. 태수가 세세하게 기록하여 상자에 보관하였다. 44)

이 부분은 국문본 줄거리에 따르면 이상서의 숙향을 죽이라는 명령을 따르지 못한 김전이 계양태수로 좌천된다. 이 때 이선이 자사로 내려와 군수와 현령들의 능력을 보고 벼슬을 높이거나 파직시켰는데 계양태수였던 김전이 정사를 잘하여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고 이에 이선이 김전의 벼슬을 높여 양양태수로 보내게 된다. 이 때 김전이 자사인 이선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반하물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노인의 모습이 된 용왕을 만나 숙향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용왕은 김전의 정성을 시험한다. 술을 사오게 시키기도 하고 술 취하여 자는 동안 기다리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기다리는데 물이 김전의 눈썹까지 차오르기도 하지만 김전은 숙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시험을 이겨낸다. 이에 용왕은 정성을 다한 김전에

44) 老翁曰 爾之欲見淑香者 果何心腸 對曰 禽獸亦有之 況於人乎 人而無恤子戀子之念 則飛禽走獸之反不如也 豈可使責之以人理乎 老翁曰 今爾可謂不踐爾言矣 棄之於盤若 可謂恤子乎 陷之於殺獄 可謂戀子乎 棄之陷之 由己而由人乎哉 爾不能反求諸己而求諸路邊之人 言之者雖無廉聽之者還不若哉 太守曰 實由不仁不明 未能保有一女 恥切於蛇還齧尾 悔深於麝反噬臍也 老翁曰 此實淑香天定厄數所關 豈獨爲君之過失也哉 早晚爲荊州刺史之妻 是淑香也 相見有日 何必過傷哉 果此水之神也 昔日救活之鯉魚 卽東海龍王之女 而亦我之姨弟也 果有以德報德之心 茲以豫告前程 前言戲耳 當付一笑 因忽不見 太守細錄 而藏之巾笥 (한중언가본, 64면)

게 속향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며 만나게 될 것을 예고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다. 국문본과 [A]계열, [B]계열은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앞서 살핀 특징처럼 국문본에 비하여 한문본이 줄거리 중심으로 축약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김전이 시험을 당하는 앞 부분까지 살펴보면 국문본이 더욱 자세하며 상황이 부연되어 있다. 국문본에서는 여러 번 용왕과 김전이 계속해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으며 상황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인용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문본에서 용왕이 김전에게 속향을 버린 것에 대해 화를 내며 말하자 김전은 반야산에서 버릴 때에는 난리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답하고 낙양 옥중에서 속향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어질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하며 반성한다. 이에 속향의 행방을 알려주면 용왕의 자식이라도 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문본인 [A]계열과 [B]계열에서는 자신이 밝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문본에 비하여서는 크게 축약된 모습이다. 즉 한문본에서는 김전의 반성부분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문본에서는 김전이 반성하는 모습에 대하여 용왕이 “만일 그대의 정성이 지극하지 않았다면 가르쳐주지 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 부분은 한문본에서는 아예 탈락되어 있는 부분으로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속향전>은 예정된 운명의 형식 내에 정성의 위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속향전>의 주요 구조는 천상에서의 정해진 운명 속에서 주인공들이 고난을 겪기도 하고 결연을 하기도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운명임에도 인물들의 의지와 정성이 매우 중요하게 드러나는데 국문본에는 이러한 대화들을 통하여 정성의 부분을 강조해 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문본에서는 용왕과 김전의 대화를 축약시켜 김전의 반성하는 모습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용왕의 정

성언급부분을 탈락시켜 <숙향전>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성의 부분 또한 약화시키고 있다. 물론 또 다른 계열인 ㉠계열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계열의 특징인 환상적 부분의 탈락이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5) 李仙의 仙界旅行

고전소설을 구성하는 모티프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환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소설은 현실과 초현실의 부단한 교섭 속에서 서사가 진행된다. 때로는 괴상하다고 생각되는 초현실적인 환상적 모티프들이 고전소설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⁴⁵⁾ 또한 당시 선계, 이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독자들은 이러한 곳에서 노닐고자하는 욕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이선의 선계여행은 이러한 당시의 욕망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숙향전>의 다양한 환상성 가운데 이선의 선계여행은 숙향의 고난보다는 크지 않지만 이선이 겪는 고난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선의 선계여행 부분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형주자사 이선은 병부상서가 되어 서울로 올라가게 되고 이상서부부와 장승상부부, 김전부부를 함께 모시며 살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 황태후가 병이 들고 봉래산과 천태산 등 여러 곳에서 선약을 구하여야만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황제의 아우인 양왕은 이전에 이선에게 자신의 딸인 매향과의 결혼을 요구하지만 이선이 결혼을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선약을 구할 사람으로 이선을 추천하고 이에 이선은 선약을 구하러 떠나게 된다. 선약을 구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지만 용왕과 용자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선약을 구하여 돌아온다. 선약을 구하는 도중 양왕의 딸인 매향과의 천정연분에 대하여 듣는 이선은 돌아와 황태

45) 이상택 외, 위의 책, pp.148-149.

후를 살리고 매향과 결혼하며 초왕에까지 봉해지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계열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생이 배를 대고 언덕을 오르니 용자가 이미 기다린 것이 여러 시간이었다. 우리러 보니 겹겹의 봉우리 하늘을 찢었고 절벽이 깎아 놓은 듯하였다.⁴⁶⁾

㉡ 상서가 비로소 곧 바삐 물가에 배를 대고 배에서 내려 언덕을 오르니 용자가 이미 기다린 것이 여러 시간이었다. 구름산을 우리러 보니 층층이 봉우리가 하늘을 찢는 것 같았으며 아득한 암석들이 해를 가리는 것 같았다. 발로 밟을 수 없었고 손으로 만질 수 없었다.⁴⁷⁾

이 부분은 이선이 선약을 찾으러 선계여행을 하는 도중 만난 두목지에게 구루가 있는 곳을 듣고서 두목지와 헤어진 후, 앞서 헤어졌던 용자와 다시 만나는 장면이다. 뒤이어 작품에서는 구루가 있는 곳의 험함을 묘사하고 있다. 즉 이선이 구루를 만나기 위해서는 가야만 하는 곳이며 크게는 이선이 겪어야 할 고난의 공간을 설명해 놓은 것이기도 하다. ㉠계열과 ㉡계열 서사의 전반적임은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계열에서는 계열의 특징답게 험함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묘사해 놓고 있다. ㉠계열에서는 단지 봉우리의 높음과 절벽의 험함을 묘사했다면 ㉡계열에서는 발로 밟기에도, 손으로 만지기에 어렵다는 추가 묘사를 통하여 이선이 가야하는 곳의 어려움, 즉 이선의 고난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선계여행 부분에서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46) 生泊舟登岸 龍子已候多時 仰見 層峰插天 絕壁如削 (정사본, 35면)

47) 尙書始乃忙艤瓢舟於洲邊 下舟登岸 龍已候多時矣 仰見雲山 則層層峰巒 如削而插天 遙遙巖石 如劔而蔽日 足不可附矣 手不可接矣 (한중연가본, 78면)

㉠ 여러 신선들이 “우리들은 다만 청풍명월을 좋아할 따름이요 고삼과 신출은 알지 못한다. 신선을 끼고 밝은 달과 노닐며 죽을 때까지 지내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⁴⁸⁾

㉡ 여러 신선들이 웃으며 “우리들은 다만 청풍명월을 좋아할 따름이요 고삼과 신출은 알지 못한다. 너가 진실로 비록 훌륭하나 너의 일이 매우 허망하니 비록 평생동안 그것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신선을 끼고 바람과 달과 노닐며 길이 따르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⁴⁹⁾

이 부분은 구루를 만나러 온 이선에게 다른 여러 신선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이선이 찾고자 하는 선약은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말과 함께 신선세계에서 자신들과 평생 노닐자고 말하며 이선의 목적인 선약을 구하는 것을 흐트러트리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열과 ㉡계열에서는 서사내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계열에서는 신선들이 이선에게 선약을 찾는 일이 허망하다고 말하며 평생동안 구하여도 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들 또한 이선의 고난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계열에서는 앞에서 살핀 부분처럼 선계의 험한 환경을 더욱 자세히 묘사하기도 하고, 바로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선약의 얻기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 부분들의 공통점은 이선의 고난이 강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열에서는 이선이 선계에 온 목적을 이루기 어려움, 즉 선약을 쉽게 얻을 수 없음을 강화시키며 이야기하여 이선의 고난을 한층 높여 서술하고 있다. 서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선이 선약을 구하기 위하여 선계로 오게 된 것은 매향과의 결혼을 거절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천

48) 群仙曰 吾輩只耽清風明月 而不知苦參辛朮也 何如挾羽仙遨遊 與明月而長終乎 (정사본, 35면)

49) 群仙笑曰 吾輩只耽清風明月 而不知苦參辛朮也 爾誠雖嘉 爾事極誕 雖終身求之 不可得也 何如挾羽仙而遨遊 與風月而長從乎 (한중연가본, 79면)

정을 이유로 매향을 받아들여 두번째 부인으로 삼게 되는 것이 서사의 구조이다. 즉 선계여행을 통하여 이선은 구루에게 매향과의 천정을 듣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운명이라는 장치 아래에서 매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숙향전>의 주인공인 숙향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바라볼 때 이선은 매향을 얻지 않아야하며, 이에 선계여행은 첩을 맞이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계여행, 즉 이선이 매향을 얻기 위하여 받는 고난 정도가 각 계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작자가 의도적으로 개작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고난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㉔계열은 여성독자의 의식이 더욱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2. 人物 形象과 系列別 特徵

오늘날 소설분석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물을 연구하는 것에 대하여 시대에 뒤떨어지는 연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물 그 자체를 중심으로 놓고 보는 대신 성격이나 행동 또는 사건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성격, 행동, 사건의 주체는 인물이다. 따라서 인물연구는 간접화는 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외면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⁵⁰⁾ 로버트 스콜스는 “연극에서는 오직 말이나 행위만이 인물을 드러낼 수 있고 영화에서는 클로즈업 기법이 표현과 제스처만 통로로 하는 무대예술보다 인간심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소설양식에서만 인물의 내적인 삶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다. 포스터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점에서는 소설가가 탁월한 능력을 갖는다. 인물창조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바로 이 내적인 삶이다. 이러한 것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플롯이나 주석, 묘사, 암시, 수사학 등과 같은

50)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236.

다른 요소들이 작품에 기여해야만 한다.”⁵¹⁾ 고 하며 인물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소설속에서 인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는 연구는 소설을 파악하고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숙향전>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번 장에서는 그 중 대표되는 인물들이 계열별로 어떻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주인공인 숙향은 천상에서 월궁소아라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천상에서 태을선군과 사랑을 나누는 죄로 태을선군과 함께 적강하는 인물이다. 이에 월궁소아는 김전의 딸 숙향으로 태을선군은 이상서의 아들 이선으로 태어난다. 숙향은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고아의 신분으로 다섯 가지 고난을 겪으며 죄의 값을 치르게 되고 이선과의 사랑을 성취하는 인물이다. 또한 천상에서 태을선군이었다가 적강한 이선은 집안이 정한 혼사를 거절하고 자신이 선택한 배필인 숙향과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자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두 주인공과 함께 중요하게 살펴볼 인물은 마고할미이다. 마고할미는 이화정에 살며 갈 곳 없는 숙향을 데려와 보살피는 인물로 본래는 이선이 황태후의 병환을 낫게 하고자 선약을 구하러 천태산에 갈 때 만나게 되는 마고선녀이다. 즉 또한 천상에서 내려온 인물이며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외에도 김전 부부, 장승상 부부, 사향, 양왕과 매향 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본마다 인물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살피고 계열 별로 인물들의 태도와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밝혀 그 특징을 살펴보고 계열의 주제의식을 찾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51) Robert Scholes & Robert Kellogg, 『The nature of narrative』,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171. (조남현, 위의 책, 재인용.)

1) 淑香의 形象 - 苦難과 運命

주인공 숙향은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해 적강하여 지상에서 다섯 가지 고난을 통해 죄 값을 치르는 힘든 과정을 겪는다.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여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열에서는 숙향의 모습을 자신의 삶에 순응하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고난을 겪고 고난을 이겨내는 인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고난은 숙향이 깊어지고 가야만 하는 것이며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숙향에게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숙향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어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서사는 전개된다. 하지만 이러한 숙향의 모습이 계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 이 때 숙향이 들판에서 노숙을 면치 못하고 넘어지는데⁵²⁾

㉡ 이때 마을이 쓸쓸하고 황폐하여 사람과 연기가 끊어졌다. 숙향이 아침에도 먹지 못하고 저녁에도 먹지 못하여 한치 한치 앞으로 나아가며 무성한 풀 숲 사이에서 방황하다가⁵³⁾

㉢ 숙향이 마을을 다니며 구걸하며 부모님을 부르기를 그치지 않으니 보는 자들이 불쌍히 여겨 숙향에게 “네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며 부모는 어디에 있는가?” 물으니 숙향이 나이가 어려 말을 상세히 하지는 못하며 “부모님이 내일 다시 오겠다 했어요.” 하니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거두어 기르고자 하였으나 큰 전란중이라 겨를 없이 거쳐하여 이 계획을 이루지는 못하고 물러나 먹이며 “내가 바야흐로 산에 들어가니 너

52) 此時 淑香草行露宿 未免顛仆 (정사본, 3면)

53) 是時 村落蕭條 人烟斷絕 淑香朝不食夕不食 寸寸前進 彷徨於豐草茂林之間 (한중연가본, 4면)

는 또한 여기에서 잠시 피하여라” 하였다. 숙향이 길가의 빈집에 들어가 굶기도 하고 먹기도 하며 며칠을 보냈다.⁵⁴⁾

이 부분은 전쟁 중에 버려진 숙향이 도적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 하였으나 도적 중 한 사람이 숙향을 살려주자 하여 숙향은 목숨을 구하게 된다. 이후 마을에 버려진 숙향이 유리결식하며 방황하는 모습이다. [A], [B]계열에서는 단지 노숙을 면치 못하고 방황하기만 하는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C]계열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숙향의 방황하는 모습과 처지에 대한 서술이 더욱 길어졌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숙향은 스스로 구걸하기도 하며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조력자를 기다리는 [A], [B]계열의 수동적인 모습의 숙향이 아니라 직접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의 숙향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숙향의 상황에 대한 태도와 모습은 계열마다 차이를 보이며 나타난다.

고난뿐만 아니라 중요서사인 이선과의 결연 부분에서도 숙향의 태도가 계열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앞서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문본을 비롯한 [A], [B]계열에서 그려지고 있는 숙향은 이선과 결연하고자 할 때 그가 태을선군임을 거듭 확인한 후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태을선군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지연에서의 구슬을 확인하려는 강한 태도로 나타난다. 천상에서 맺은 운명이라는 틀 안에서 결연하고자 하는 숙향의 강한 의지를 찾아 볼 수 있다. ⁵⁵⁾하지만 [C]계열에서의 숙향은 이선과 결연하고자 할 때 [A], [B]계열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살펴볼도록 하겠다.

54) 淑香行乞村閭 呼父母不輟 觀者愛憐而問於淑香曰 兒在何處 父母 焉往 淑香 年尙幼冲 語不可詳曰 父母 明日 來返汝矣 人皆流涕 意欲收養而大亂中 不遑居處 未盡此計 退食而食之曰 吾方 逃入山 兒亦居此謹避 淑香轉入道傍空舍 或飢或食 已過數日 (한중연나본, 5면)

55) 이전 장에서 살폈기에 인용은 생략한다.

㉔ 숙향이 잠시 틈을 타 묻기를 “할미가 무슨 이유가 있어 얼굴에 근심이 있는가요? 내가 할미를 모시기를 친 어머니같이 하였고 할미가 나를 사랑함을 자기 딸처럼 하여 조금도 어려운 일이 없는데 오히려 근심하는 얼굴빛이 있음은 어째서인가요?” 하니 할미가 말하길 “옳구나, 너의 물음이어. 앓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늙은 내가 하늘과 땅에 죄를 짓고 신령에게 어그러짐을 얻어 이미 남편을 잃고 또 의지할 자식도 없어 쓸쓸한 발자취로 외롭게 살다가 남자를 얻은 이래로 원한스러이 홀로된 슬픔을 조금 위로하여 일찍이 은애의 정을 돈독히 하여 아름다운 사위를 얻는 것을 바라여 후사를 의탁하기를 원하였으니 어제 밤에 이로부터 온 자가 위공의 아들이니 선은 이름이고 용안이 아름답고 뜻과 생각이 너그러우며 문장필법이 당세에 견줄 것이 없음이요, 갖추어 노신에게 줌으로 자못 중한 은혜였다. 잠깐 남자를 보고 놀라 황홀함을 깨닫지 못하여 매번 노신을 향하여 진실로 간구함을 이르니 들어주고자 하면 마음이 차마하지 못함이요 듣지 않고자 하면 일이 헤아릴 수가 없으니 이로서 상심하여 근심이 없을 수가 없구나” 하니 숙향이 다시 앓아 옷깃을 거두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이미 할미의 자식이 되었으니 어찌 자식됨으로 할미 마음을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생각건대 제가 멀리 버려짐에 의지할 데가 도무지 없고 나이가 15세가 되어 오히려 남편을 만나지 못하여 항상 두려워하고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생각하기를 교목의 사라로 의탁하여 평생 우러러 보기를 본받고자 하였는데 가까이서 이선을 보니 말이 자세하고 분명하여 성실한 모습이 드러나고 거동이 정도에 알맞아 또 따듯하고 어진 태도가 많으니 현명한 지아비를 구하고자 하는데 그가 뛰어나 따를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기운이 세고 뜻과 생각이 정해지지 않아 한번 저의 비루한 용모를 보고 비록 터무니없이 마음에 구하는 바이나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함에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짐승의 예를 따를 수 없으며 사사로이 장난을 치면 조물주가 크게 시기하여 성적이 드러나고 좋은 일이 어지러워져 화가 반드시 예측할 수 없으리니 우물의 은병 같아 끝내 가을철

의 부채와 같이 쓸모없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게 헤아리는 바가 이것 밖에 되지 않으니 앞드려 원컨대 할미는 용서하시고 행하소서” 하였다.⁵⁶⁾

이 부분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숙향은 할미의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묻는다. 이에 할미의 대답으로 숙향은 근심의 이유가 이선과 자신의 결연 때문임을 알게 된다. 이에 숙향은 이선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때 ㉠계열에서의 숙향은 이선을 받아들일 때 이선이 요지연의 구슬을 가지고 있는 천정연분의 태을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자식됨으로써 할미를 향하여 할미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함과 또한 이선의 모습을 보니 결연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했기에 결연을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선 또한 숙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결연을 요구한다. 이화정에 찾아오기도 하고 마고할미에게 돈을 보내 할미를 고민하게 만든다. 이러한 배경에서 숙향은 결연을 받아들 것이다. 이는 이선이 자신을 보고 결연하고자 함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결연하는 숙향의 태도라 볼 수 있다. 고난에서는 의지적으로 살고자 하는 숙향의 모습이 결연 앞에서는 이선을 선택하는 모습에 있어서 운명을 중요히 여기지 않은 채 수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56) 淑香 乘間問曰 嫗何有故而憂形於色 無乃見我 不合處乎 淑香 侍尊嫗 如親母 尊嫗 愛淑香 如己女 少無難事而猶有憂色 何也 嫗曰善 如爾之問也 坐 吾語汝 老身 負罪天壤 獲戾神明 既失所天 又無依子 踽踽踪踪 孤苦度日 自得娘子以來 稍慰怨獨之愴 常篤恩愛之情 幸得佳婿 願托後事 昨夕來此者 李魏公子 仙 其名而容顏 粹美 志慮 寬和 文章筆法 當世無比 具與老身 頗重恩眷 頃見娘子 不覺驚悅 每向老身 至誠懇求 欲聽則心所不忍 不聽則事在不測 以此傷心 不能無憂也 淑香 更坐歛衽而對曰 淑香 既爲尊嫗之子 焉有爲子而莫慰母心 自念賤妾 千里投人 四顧無親 年垂及笄 尚未移天 常恐雀鼠之穿壁 難保珠玉之沈碎 思托喬木之絲蘿 欲效終身仰望而近觀李郎 言語詳明 顯有誠信之色 行止中正 又多溫良之態 欲求賢夫 無出其右 然而年少氣俠 志慮未定 一見賤妾之陋容 縱有浪心所求 未有室家 不告父母 弗遂委禽之禮 私作弄梅之戲 造物多猜 聲跡 彰露 好事難常 禍必不測 有同井底之銀瓶 終作秋風之團扇 既有許身之愚 竟致噬臍之悔 愚蒙所量 不過如此 伏願尊母 恕而行之 (한중연나본, 25~26면)

2) 李仙의 形象 - 사랑과 精誠

다음으로 살펴 볼 인물은 이선이다. 이선도 숙향과 마찬가지로 천상에서 내려온 인물이다. 숙향은 천상에서 월궁선녀의 위치로 있다가 인간세상에서 천한 신분으로까지 내려간 반면에 이선은 천상에서 선관의 신분에 있다가 적강하여 지상에서도 높은 신분으로 살게 된다. 숙향은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전쟁고아가 되고 유리걸식을 하는 등 연속적인 고난을 겪었으나 이와 달리 이선은 좋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편안하게 지내다가 숙향을 만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숙향을 향한 이선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정도가 약한 것은 아니며 작품 내에 이선을 향한 시험과 고난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이선은 숙향을 얻기 위하여 마고할미의 시험으로 김전의 집부터 장승상의 집, 표진과 노전을 모두 다니는 고난을 겪기도 하며 매향과의 혼인을 거절하여 황태후의 선약을 찾으러 선계여행을 떠나는 고생을 겪기도 한다. 매향과의 혼인을 거절하여 선계여행을 떠나 고생하는 이선의 모습에서 숙향을 향한 애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선의 형상을 통하여 계열별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마고할미가 숙향의 모습에 대하여 병인이라며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이선의 숙향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 아아 나로 말미암아 된 일이니 배반도 상서롭지 않습니다. 가세를 논할 것도 없고 미추를 생각할 것도 없으니 만약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면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들어가고 아홉 번 죽고 한번 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고 나서 그만둘 것입니다. 57)

57) 嗟乎 職我之由 背之不祥 不論家勢 不計妍媸 而倘聞所在 則雖升天入地 十生九死 見而後已也 (정사본, 15-16면)

㉔ 소아의 죽음은 오직 내가 한 일 때문이니 팔이 잘리고 눈이 먼 참혹함과 다리가 그을리고 귀가 먼 액운은 나의 한탄이 아닐 수 없어 배반은 상서롭지 않습니다. 지금 집안이 귀한지 낮은지 따지지 않고 용모가 아름다운지 추한지 논하지 않고 오직 소아하고만 빙례로 결혼할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든 땅에 들어가든 따지지 않고 불을 밟고 물로 뛰어드는 것도 논하지 않고 오직 소아를 구하고 얻을 것 입니다. 빙례로 결혼한다면 살 것이고 빙례로 결혼하지 못하면 죽을 것입니다. 구하여 얻으면 살 것이고 구하여 얻지 못하면 죽을 것 입니다.⁵⁸⁾

이 부분은 숙향이 병인이라는 할미의 거짓말에도 숙향을 만나고자 하는 이선의 대답 부분이다. 이선은 숙향이 병인의 모습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고 하며 겉모습을 따지지 않고 결연하겠다고 대답한다. ㉒와 ㉔계열에서의 이선의 태도는 한결같다. 천정이라는 예정된 운명을 안에서 숙향을 사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숙향을 보지도 못했지만 계속해서 숙향과의 결연을 요구하는 이선의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선의 모습이 나타나는 ㉔계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㉔ 곧장 뜰 안에 들어가 문을 열고 보니 숙향이 부끄러운 모습을 머금고 얼굴을 아래로 하고 벽을 향하니 어슴푸레하니 마치 푸른 달이 처용나고 가는 구름이 자취가 없는 것 같았으며 완전함은 마치 붉은 연꽃이 반쯤 핀 것 같아 상서로운 안개가 바야흐로 짙어 눈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니 신선 같아서 정녕 요지 꿈에 구슬을 떨어트린 여종과 같았다. 선이 마음이 녹고 뜻이 감동함에 정신이 흩어져 장차 뛰어넘어 들어가고자 하였다.⁵⁹⁾

58) 少娥之死 惟我作俑 節臂眇目之慘 焦股耳聾之厄 莫非惟我之嘆 所以背之不祥 今我不計家閥之卑微 毋論容貌之媿妍 惟少娥是娶是聘 不計昇天而深入地 毋論蹈火而赴水 惟少娥是求是得 娶之聘之則生 不娶聘則死 求之得之則生 不求不得則死 (한중연가본, 34면) (『孟子』 「梁惠王上」에서 作俑은 나쁜 선례를 의미하는데(仲尼曰 始作俑者 其無後乎 爲其象人而用之也), 여기서는 자신이 한 나쁜 것을 말함. 節은 絶의 오자임.)

이 부분은 숙향이 요지연에서의 일을 수놓은 것을 얻게 된 이선이 이화정을 찾아간다. 그리고 이선은 그곳에서 숙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 이후의 서사전개를 살펴보면 이선은 계속해서 숙향과의 결연을 하고자하며 이에 이화정에 찾아가고, 마고할미에게 돈을 보낸다. 앞서 살펴본 [A], [B]계열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결연하고자 하는 이유의 차이가 나타난다. 국문본을 포함한 다른 한문본계열에서 이선이 숙향과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는 천정에서 맺어진 인연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C]계열에서의 결연이유는 달라진다. 처음 이선이 요지연수본을 얻고 이화정을 찾아오지만 숙향과의 결연을 마음먹게된 것은 숙향의 아름다움을 보고나서이다. 즉 다른 한문본과 달리 숙향을 보고나서 결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기때문에 숙향을 보지 못한 채 결연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한문본들보다 현실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선의 모습 또한 계열별로 차이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 결연에 있어서 이유와 태도가 달랐듯 숙향을 향한 사랑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난다.⁶⁰⁾

[A] 왕이 (매향의) 뜻을 저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황제에게 들어가고하니 초공(이선)을 부르라 명하였다. 초공이 혼인을 의논할 일을 알고는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중략) 이에 학을 탄 신선이 내려오니 곧 구루였다. 손을 잡고 한숨을 쉬며 말하기를 “어떤 일로 임금과 이별하였으며 하물며 바다 중에서 고생하는가? 또한 설중매가 그대를 따라 세상으로 내려갔는데 서로 만났는가? 그대와 세상의 인연이 있으니 양왕의 딸이다” 하였다. 이선이 말하기를 “그 혼사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행역의 고생을 만난 것입니다” 하였다.⁶¹⁾

59) 卽立庭內 開戶視之 淑香 帶羞含態 低頭向壁 悅若碧月 初生 纖雲無跡 完如紅蓮 半開瑞霞 方濃 雪態美容 望若神仙 正如瑤池夢 落珠叉鬢 仙心融意 感情越神散 將欲超入 (한중연나본, 22면)

60) 국문본과 [A], [B]계열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C]계열의 탈락 부분을 살피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A]계열만 인용한다.

㉠계열의 나타난 이선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이선은 양왕이 자신의 딸 매향과 계속하여 혼인을 요구하자 황제의 부름에 병을 핑계대고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양왕은 황태후의 선약을 구하러 떠나는 사람에게 이선을 추천하고 이선은 선약을 구하러 떠나게 된다. 이때 선약을 구하는 도중 구루를 만나게 되고 구루는 매향과 만났는지 이선에게 묻는다. 그리고 이선은 매향과 혼인을 하지 않아 이렇게 고생한다고 대답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선의 숙향을 향한 애정의 정도와 책임감이 나타나 있다. 숙향과의 결연과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계열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즉 ㉡계열에서는 숙향을 얻기 위하여 여러 고생을 하며 다시 이화정으로 돌아오는 부분이나, 황태후의 선약을 찾기 위하여 선계여행을 떠나는 부분이 나오지 않으며 매향의 존재 또한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 국문본을 포함한 다른 한문본에서는 매향과 결연을 거절하고 이에 고생하러 떠나는 이선의 모습을 서술함으로 숙향을 향한 이선의 애정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계열에서는 양왕과 매향, 이선이 떠나는 선계여행의 부분이 모두 탈락되어 있다. 즉 매향과의 혼사를 거절함으로 숙향에 대한 애정이 강화되는 장면을 탈락시켜, 이로써 이선의 숙향을 향한 애정에 대한 정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3) 麻姑의 形象 - 超越과 世俗

마고할미는 장승상덕에서 쫓겨난 후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난 숙향이 화덕진군에 의하여 구해진 뒤 만나게 되는 인물이다. 마고할미는 이화정에 살며

61) 王知難奪其志 入告天子 命招楚公 楚公知其議婚之事 稱病不赴 (중략) 跨鶴老仙下來 卽尙僕也 握手歔歔曰 何事別帝京 沈淪苦海中 而且雪中梅 隨君降世 不得相見乎 與君有再世之緣 梁王之女 是也 曰 因其辭婚 逢此行役之苦也 (정사본, 32, 35면)

고아로 버려진 숙향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마고할미는 원래 마고선녀로서 천상에서 내려온 인물이며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고난에 빠진 숙향을 돕는 다른 환상적 면모를 지닌 등장인물들이 잠깐 나타나 도움을 주고 사라지는 것과는 달리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모습으로 숙향을 돌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즉 마고할미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자의 초월성과 초월적 도움을 주는 자의 현실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초세속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마고할미는 이선이 숙향을 찾고자 이화정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이선이 꿈에서 요지연의 잔치를 경험한 내용까지도 알고 있었다. 또한 숙향이 옥중에 갇혀있을 때도 신이한 능력으로 숙향을 구하며 이 때 이 사실을 청조로 변하여 이선에게 편지로 전달하기도 한다. 이선과 숙향의 결연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마고할미의 모습이 서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고할미의 모습이 계열별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고할미는 숙향이 마고할미를 만나기 전에 네 번의 고난을 겪은 것을 모두 알고 있다. 또한 이선이 숙향과의 결연을 위하여 이화정에 찾아 왔을 때에도 이선이 꿈 속에서 대성사에 다녀온 일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인간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기한 음식들을 차리기도 한다. 하지만 ㉠계열에서는 이러한 할미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살펴보도록 하겠다.⁶²⁾

㉠ 홀연히 어떤 늙은 할미가 지나가다가 물어 말하기를 “나이가 장성한 여자가 벗고 길을 다니니 어떤 죄를 지었는가? 부모에게 내쳐졌는가? 다른 사람의 재화와 보물을 훔치다가 드러나 쫓기고 있는가? 화적을 만나 몸을 발가벗기고 도망하였는가?” 하니 숙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부모가

62) 국문본과 ㉠, ㉡계열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계열의 크게 차이나는 부분을 살피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계열만 인용한다.

없는데 어찌하여 쫓겨났겠습니까? 또한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쫓기겠습니까? 화적을 만나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도망치겠습니까? 다만 굶주리고 고달파 앉아있을 뿐입니다” 하니 늙은 할미가 웃으며 말하기를 “너는 부모가 없으면 어디에서 났겠는가? 반하에 빠지려한 것이 어찌 내쳐진 것과 다른가? 장승상택 봉채와 장도로 인하여 나오게 되었으니 어찌 쫓겨난 것과 다른가? 옷을 잃고 갈대밭에서 다 탔으니 어찌 도적을 만난 것과 다른가?” 하니 숙향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답하길 “어찌 아는 가요 신인가요?” 하였다.⁶³⁾

㉠ 과연 늙은 할미가 지팡이를 잡고 와서 숙향의 곁에 앉으며 목을 끌어 자세히 살피며 묻기를 “어떠한 여자이길래 이와 같이 해질 무렵에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고 홀로 나무 아래에서 가리고 있는가?” 하니 숙향이 답하기를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인하여 친척이 없어 오직 이 병든 몸이 스스로 먹을 수 없어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것으로 업을 삼았을 뿐입니다” 하였다.⁶⁴⁾

이 부분은 마고할미와 숙향이 처음 만나는 부분이다. ㉠계열에서 마고할미는 숙향을 처음 보자마자 숙향이 겪은 네 번의 고난을 이야기한다. 이에 숙향은 마고할미의 신이한 태도에 놀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계열에서는 현실적인 모습으로 단순히 숙향의 처지에 대하여 묻는 모습이 나온다. 마고할미의 현실적인 모습으로의 차이는 숙향이 요지의 잔치에 다녀오는 꿈을 꾸 후의 대화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63) 忽有老姬過去 而問曰 年長女子 裸體行路 無乃得罪 而見黜於父母歟 竊人財寶 現露被逐歟 逢着火賊 赤身逃免者歟 淑香答曰 無父母 何爲見黜乎 又無偷物 何爲被逐乎 不逢火賊 何爲逃免者乎 但飢困而坐耳 老姬笑曰 汝無父母 生于何處 投於盤若 奚殊乎見黜 因張丞相釵刀而出 奚殊乎被逐 失裙盡燒於蘆火 奚殊乎逢賊乎 淑香驚怖而答曰 何知之神乎 (정사본, 10면)

64) 果有老嫗 扶杖而來坐於淑香之側 引頸熟視而問曰 何物女子 如此薄暮 他無從隨而獨屏樹下 淑香對曰 幼失父母 因鮮族黨 惟此病身 不能自食 行乞爲業耳 (한중연나본, 13면)

㉠ 이 때 할미가 바야흐로 돌아와 흔들어 깨우니 이내 한 꿈이었다. 구슬 연못의 경치가 눈에 아른거리고 하늘의 광대한 음악소리가 귀에 굉굉하였다. 할미가 웃으며 말하길 “하늘의 즐거운 일은 인간세상과 어떠한가?” 하니 숙향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꿈 속의 일을 할미가 어찌 아십니까?” 하였다.⁶⁵⁾

㉡ 할미가 급히 숙향을 부르며 말하기를 “남자가 어찌 낮잠을 오래하는가?” 하니 숙향이 놀라 일어나 꿈에서 깬 요지의 풍경이 눈에 보이며 요지의 소리가 귀에 들리고 옥가락지의 구슬을 보니 있지 않았다. 숙향이 매우 놀라 할미에게 꿈 속에서 다녀온 요지의 일을 모두 말하고 또 요지의 풍경과 구슬을 떨어뜨린 일을 말하니 할미가 탄식하며 말하길 “내가 요지를 들음에 이는 곧 서왕모가 사는 곳인데 남자가 꿈에 이에 이르렀다 하니 어찌 지난 세상에서의 인연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광경을 남자가 홀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으니 진실로 애석하구나. 원컨대 남자는 그 풍경을 수 놓고 구슬을 잃어버린 형상을 함께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⁶⁶⁾

이 부분은 숙향이 꿈에서 요지의 잔치를 다녀온 후에 할미와 대화하는 장면이다. ㉠계열에서는 마고할미를 신이한 인물로 설정해놓았기에 숙향이 꿈 속의 일을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이미 마고할미는 숙향이 꿈에서 요지에 다녀온 일을 알고 있다. 이에 숙향은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계열에서는 단지 낮잠을 오래자는 것에 대해서만 물으며 숙향에게 꿈 속의 일을 다 들은 후에 지난 세상에서의 인연이라며 놀라는 모습을 보이고

65) 此時 老媪方還 攪而醒 乃一夢也 瑤池萬景 森森乎目 鈞天廣樂 轟轟乎耳 媪笑曰 天上樂事 何如人間乎 淑香大驚曰 夢裏之事 媪何知之 (정사본, 12면)

66) 老媪急呼淑香曰 娘子何晝寢 支離耶 淑香驚起罷夢 瑤池之景 在眼 瑤池之音 聽耳 所着玉指環 眞珠 視之無有 淑香極其驚異 對老媪 吐說夢入瑤池之事 且道瑤池之景及眞珠墮落之意 老媪歎曰 吾聞瑤池 乃西王母所居之地 而娘子夢有至此 豈非宿緣耶 如此美景 娘子獨玩 人不及知 正可惜也 願娘子 刺繡其景 并記失珠之狀 以視人間焉 (한중연나본, 16면)

있다. 또한 이러한 부분 외에도 이선이 숙향과 결연하고자 마고할미를 찾아 오고 계속해서 돈을 보내오자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즉 국문본과 ㉠, ㉡계열에서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자의 초월성이 부각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계열에서는 분명 초월적인 인물인 마고할미이지만 초월성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현실적인 모습이 부각되도록 바꾸어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父母의 形象 - 慈愛와 潔白

<숙향전>에는 숙향과 이선, 마고할미 말고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전란 중에 숙향을 산 속에 버린 친부모인 김전과 그 부인, 숙향이 떠돌다가 10년을 의탁하게 되는 장승상과 그 부인, 장승상댁에서 숙향을 모함하여 쫓아내는 여종 사향, 이선의 부친인 이상서와 그 부인, 이선에게 계속 혼인을 요구하는 양왕과 이선이 아니면 혼인하지 않겠다는 양왕의 딸 매향 등 현실적인 인물들이 있다. 또한 유리걸식하다가 명사계에 들어간 숙향을 구해주는 후토부인, 포진강에 빠진 숙향을 구해주는 용녀와 선녀들,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난 숙향을 구해주는 화덕진군, 이선이 선계여행 중 만나게 되는 여러 환상적 인물들 등 매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계열마다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이 다르게 그려지고 있으며 탈락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열별 주제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살펴보기에 마땅하다. 그 중 숙향의 친부였던 김전의 모습과 장승상댁에서 의탁할 때의 양어머니였던 장승상 부인의 모습에서 계열별 차이의 뚜렷함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먼저 숙향의 친아버지인 김전을 서술하는 부분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송 남양에 김전이라는 자가 있으니 가난하였으나 현명하였다. 일찍이 반하에서 친구를 전별하는데 어부들이 거북 잡은 것을 보고 그 죽음을 불쌍히 여겨 옷으로써 거북과 바꾸어 물에 놓아주었다. 67)

㉡ 대송 순희 연간 남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성은 김이요 이름은 전이었다. 대대로 청한하여서 송곳을 꽃을만한 땅도 없고 집은 다만 네 벽뿐이었지만 사람됨이 자상하고 널리 사랑하여 오직 나누어서 배풀고 만물을 구제하는 것을 일삼았다. 하루는 반하의 물가에서 친구를 전송하며 여구장을 노래하고 날치와 망둥어와 같은 물고기를 회쳐먹었다. 마침 한 어부가 큰 잉어를 팔았는데 길이가 육척이나 되었다. 수염을 펼치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마치 불쌍하게 여겨주기를 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생이 장차 사지로 나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 바로 옷을 벗어서 그것과 바꾸고 물에 놓아주었다. 처음에는 꼬리를 물에 세차게 흔들다가 은혜에 감사함을 머금은 듯한 모습이 있더니 잠시 후에 유연히 떠나갔다. 68)

㉢ 소흥 연간에 남양 김전이라는 자가 있었으니 운수선생 행간의 아들이다. 운수선생은 도덕 문장이 세상에서 숭상되어 황제가 여러 번 이부상서와 간의대부로 불렀지만 모두 받지 않고 산에서 끝까지 살았다. 전은 대대로 청덕을 이었고 집안일을 담박하게 하였다. 전이 하루는 술을 싣고 친구를 환송하였는데 반하물가에 이르러서 어부 여러 명이 함께 금 거북 한 마리를 얻어서 장차 불에 구워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전이 급히 만류하며 말하길 “거북은 머리에 하늘 ‘천’자를 이고 있고 배

67) 有宋南陽 金瑑 貧而賢 嘗餞友於盤河 見漁者獲龜 悶其死 以衣易之 放于水 明年 瑑訪友於襄陽 路過白雲橋 而橋爲瀑水之所崩 幾死之際 見黑塊浮于水面 投坐其塊之上 橫流而去 至于水涯 其物吐氣如虹 而雙珠在地 瑑知其有異 拾而藏之. (정사본, 1면)

68) 大宋淳熙年間 南陽有一人姓金名銓 世世清寒 地無立錫 家徒四壁 爲人慈祥汎愛 惟以舍施濟物爲事 一日餞友於盤河之濱 歌驪駒之章 鱸鱠之魚 適有一漁父 鬻大鯉魚長六尺 張鬢低頭有若乞憐之狀 生悶其喞喞而將就死地 卽解衣易之放于水中 始則搖尾焉潑潑 似有含感之狀 少焉悠然而逝矣 越明年 生訪友於襄陽 路過白雲橋 橋杠爲瀑水所漂溢 生登橋未半 仍與漂橋陷沒 自分必死之際 忽有黑塊 不先不後 浮出水面 身投其土 橫流而去 屈于水濱 遂匍匐而出開眼而視之 黑塊化爲大龜吐出雙珠於地 俛首入水而逝 生異之懷珠而歸. (한중연가본, 1면)

에는 임금 ‘왕’자를 담고 있으니 사령중의 일물이어서 제왕의 상서로운 것이니 먹을 수 없도다. 응당 빨리 놓아 주거라.”하니 어부가 말하기를 “우리가 종일토록 그물질 하였지만 작은 비닐의 물고기조차도 얻지 못하다가 잡은 것이라고는 오직 이 거북 하나일 뿐이요, 몸은 피로하고 배는 고파서 장차 요기하고자 할 따름이니 원컨대 말리지 마시오.” 라 하였다. 전이 돌이킬 방법이 없었다. 다만 바라보니 그 거북이 김전을 올려보며 눈물이 맺혀 눈동자에 가득하여 김전이 차마 하지 못하는 측은지심 때문에 차고 있던 술을 놓고 그 거북과 바꾸어 물에 놓아주었다. 거북이 마침내 살아서 흐르는 물 가운데 떠올라 김전을 돌아보며 마치 감사하는 듯 하는 것을 세 번이나 하였다. 69)

㉔계열은 ㉑계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열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한자의 배열이 흡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㉑계열에 비하여 ㉔계열은 부연과 묘사부분에서 많이 확장되어 있다. 김전에 대한 서술도 확장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가난하였지만 현명하였다’ 라는 ㉑계열의 설명에 비하여 잉어를 살려주는 자비로운 김전의 성품을 두드러지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전쟁 중에 속향을 산속에 버리는 김전의 모습에 앞서 서술해 놓은 것으로 속향을 버리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잔인하고 부도덕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차마 어찌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읽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㉑계열에서는 거북을 살려주는 자애로운 모습이 과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어부들이 하루종일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음을 호소함에도 김전은 술을 주고 거북을 풀어준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보다 동물을 더 측은히 여기는 김전의 모순된 행동을 보여준다

69) 紹興中 有南陽金鈿者 雲水先生 行簡之子也 雲水先生道德文章爲世所宗 帝累徵爲 吏部尙書 諫議大夫 皆不受 終於山 鈿世襲清德 家事淡泊 鈿一日 載酒送客 至泮河水 見漁夫數人共得一金龜 將欲燒而食之 鈿急止之曰 龜者頭載天字 服抱王字 四靈之中一物而帝王之祥瑞不可食也 宜速放之 漁夫曰 吾等終日 提網未得 緘介之鱗而所獲者 惟此一龜 而已身勞腹虛 將以療飢耳 願勿止之 鈿無由可回 顧見其龜 仰視金鈿 凝淚滿眶 鈿不忍惻隱之心 解其所佩酒 換其龜而投之河 龜遂得生浮水 中流回顧金鈿 若爲致謝者三矣 (한중연나본, 1면)

고 할 수 있다. 사향의 모함 장면 부분에 있어서도 장승상 부인의 행동이 계열별로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부인이 그리하여 방에 들어가 숙향에게 말하길 “장도와 봉채 모두 오래동안 쓰지 않아 둔 바를 잊었는데 혹 너에게 잘못 둔 것이 아닌가?” 하니 숙향이 답하길 “사람이 이미 가져가지 않았는데 물건이 어찌 스스로 오겠습니까?” 하였다. 장차 옷상자를 한번 뒤집는 사이에 비녀와 장도가 앞에 떨어지니 부인이 참담함을 이기지 못하고는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 승상에게 고하였다.⁷⁰⁾

㉡ 부인이 듣고서 마음에 반드시 옳지 않은 말이라고 여겼으나 이것을 두고 묻지 않는다면 숙향이 종신토록 누명을 면할 수 없으니 곧 쪼개어 깨트리는 것만 못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 마침내 숙향의 방에 들어가 천천히 말하기를 “나의 비녀와 장도를 잔치자리에서 요긴하게 쓰고자 함인데 둔 곳을 잊었으니 혹 너에게 잘못 둔 것이 아닌가?” 하니 숙향이 일어나 대답하여 말하길 “처음에 모친께서 내려준 것이 아니며 또한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니 여기에 있다는 이치가 아닌 것 같고 이미 명령이 있으니 감히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마침내 장차 옷 상자를 한 번 뒤집으니 곧 장도와 봉채가 앞에 쨍그랑하며 떨어졌고 부인이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참담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장도와 봉채를 가지고 들어가 조용히 앉아 깊이 생각하였다.⁷¹⁾

70) 夫人然之 入其房 謂淑香曰 粧刀鳳釵 久藏不用 忘却所在 無惑誤置於爾所耶 淑香答曰 人既無持 物何由自來 盡將衣篋 一一翻倒之際 釵刀出落於前 夫人不勝慘愕 有口無言 入告丞相 (정사본, 4면)

71) 夫人聽了 於心以爲必無是理 然此若置而不問 則未免爲女兒終身之累 不如卽地劈破以爲謝人言之愈也 遂入淑娘房中 徐言曰 吾之釵刀 方欲緊用於宴席 而忘却所在 無惑誤置於爾所耶 淑娘起對曰 初無母親之下授 又無小女之面受 則似無來此之理 而既有下教 敢不挿闕 遂將衣篋 一一翻倒 則釵刀錚然落下於前 夫人一邊驚愕 一邊慙慙 更無一言 只將釵刀而還 默坐沉思之際 (한중연가본, 10면)

㉔ 부인이 곧 그 방에 나아가 옷 상자를 열어 보니 과연 장도와 봉채가 있거늘 부인이 크게 화가나 곧장 승상 앞에 들어가 아뢰어 말하였다.⁷²⁾

이 부분은 장승상택의 간악한 종이었던 사향이 숙향이 들어온 후 자신도 도맡아 하던 일을 숙향이 하게 되면서 숙향을 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잔치 날 몰래 부인의 방에 들어가 장도와 봉채를 훔쳐 숙향에 옷상자에 두었다. 이에 부인이 장도와 봉채가 사라진 것을 알고 찾는 중 사향이 숙향이 그것을 훔친 것 같다고 모함한다. 이에 반응하는 부인의 모습이다. 부인의 모습은 계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㉑를 살펴보면 묘사나 부연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줄거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㉑에서는 사향의 모함을 듣고 승상부인이 곧 숙향의 방으로 가서 숙향에게 상황을 묻는다. 이에 숙향의 대답을 듣고 옷상자를 뒤집으니 장도와 봉채가 나온다. 이에 아무 말도 없이 곧 승상에게로 가서 고하는 부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㉒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부인으로 서술되어 있다. 부인이 사향의 말을 듣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며, 숙향의 옷상자를 확인하는 것은 숙향의 누명을 벗기기 위함이라는 서술자의 설명이 더하여져 있다. 이는 숙향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강하였음을 보인다. 또한 장도와 봉채가 숙향의 옷상자에서 나온 것을 본 부인이 바로 승상에게 가지 않고 홀로 고민하는 모습이 더하여져 있다. 이는 ㉒계열이 ㉑계열에 비하여 장승상의 부인이 숙향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두터이 가지고 있었을 보여주고 있다. 인용한 부분에 이어져서는 사향이 장승상 부인에게 계속해서 모함하여 결국 숙향을 쫓아내게 되는 내용이 서술된다. 하지만 앞서 이러한 부인의 모습을 설명함과 사향의 계속된 모함이 서술됨으로 ㉒에서는 숙향을 내치는 부인의 모습을 어쩔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백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 ㉔계열에서는 이와는 달리 더욱 단호한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㉑계

72) 夫人卽造其室 啓箱視之 果有刀釵 夫人大怒 直入丞相前而白之 (한중연나본, 7면)

결과 ㉠계열에서는 사향의 말을 듣고 숙향에게 먼저 확인하는 부인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지만 ㉡계열에서는 숙향에게 확인을 하지도 않고 사향의 말을 듣자마자 숙향의 방에 가서 옷상자를 여는 부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또한 봉채와 장도가 숙향의 옷상자에서 나왔을 때 다른 계열의 부인의 모습은 참담함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계열에서는 매우 화가 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즉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승상부인의 숙향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도와 결백은 ㉠계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IV. <淑香傳>異本の 系列別 主題意識의 樣相과 意味

<숙향전>은 신성소설이라고 알려져 왔듯이 <숙향전>의 가장 큰 특징은 환상성이라 할 수 있다. 숙향이 겪는 고난에서의 도움이나 조력자의 등장, 이선과의 결연, 부모를 상봉하게 되는 과정, 이선이 떠나는 선계여행 등 모든 부분에서 환상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상성을 작품 내부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먼저 환상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환상성은 말도 안 되는 신이한 이야기를 만드는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천정연분 즉 운명을 설명하며, 숙향이라는 인물이 천상의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작품 내의 환상성은 운명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주인공인 숙향의 아픔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겪는 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즉 환상성은 고귀한 존재인 숙향의 운명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정된 질서에 따라 고난을 겪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숙향의 시선에서 고난과 결연에 대하여 살폈다면 이선의 시선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특징은 정성이다. <숙향전>은 전반적으로 정성의 서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정된 운명 속에서 계시를 하는 과정 중 정성이 매우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고가 숙향과 결연하고자 찾아온 이선을 시험하여 이선이 고난 앞에서 정성을 다하는 부분과 김전이 용왕에게 숙향을 물었을 때 김전이 정성을 다하는 부분, 이선이 매향과의 결혼을 거부하고 떠난 선계여행이 모두 그러한 부분이다. <숙향전>에서 숙향과 이선의 결연은 분명 하늘에서 정한 운명의 서사인데도 곳곳에 정성을 시험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성을 다해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운명의 형식 안에 정성

의 위치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서사전개와 인물형상의 차이로 계열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토하였으며 <숙향전>의 여러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본 여러 특징들과 서사전개와 인물형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계열별 주제 의식과 의미의 차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국문본을 줄거리 중심으로 축약한 특징을 보이는 [A]계열과 [A]계열에 약간의 묘사와 부연이 더하여진 [B]계열에서는 환상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환상성이 마련되어 있는 서사 내에서의 고난은 통과의례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이 계열들에서는 숙향이 고난을 겪어가며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성취나 목적을 설정해두고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만 성취가 있게 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단순히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숙향은 수동적인 태도로 환상적인 상황과 인물들의 도움을 받았고 이에 성취가 생기는 구조로 서술되어 있다. 즉 이러한 통과의례적 서사에서의 고난은 과정적인 의미로 설명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운명을 중요시 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A]계열은 국문본과 비교하였을 때 고난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며 환상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국문본의 비하여 전생담이 조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현실성의 강화로 보기도 한다. 한문본은 근본적인 불합리성을 은폐나 미화없이 솔직하게 드러내 보였으며 이는 이유없이 겪어야 할 고난이 되기에 폭력성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서사적 합리성이 약화되며 숙향의 결연의지가 약화됨을 보이는 것이다.⁷³⁾ 이선과 숙향의 사랑이 천정연분에 의한 운명의 사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계열은 국문본에 비하여 인간의 정성 때문이라는 부분이 약화되어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는 소박한 정성주의라고 말할

73) 지연숙, 「숙향전 한문본 연구」,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p94.

수 있다. 모든 것이 운명일지라도 인간의 정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국문본에서는 용왕이 숙향의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정성 때문이라고 하며 정성이 아니었으면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 말한다. 이에 [A]계열의 작자는 “정성이 아니었으면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누락시켜 예정된 질서 즉 운명을 강화시키고 있다. 즉 국문본에 비하여 인간의 정성에 관한 부분이 약화된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 한문본은 상호책임과 신의를 다하는 인간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⁷⁴⁾ 하지만 국문본에서는 운명과 정성을 병치해 놓아 크게는 운명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곳곳에 인간으로서의 정성을 중요하게 서술함으로 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 가를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다. 설령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성의 자리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문본에서는 정성보다는 운명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전 연구에 대하여서는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B]계열은 [A]계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장하고 부연시켜 서술하고 있다. 크게 서사적 맥락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들임을 알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B]계열의 주제의식을 놓쳐서는 안된다. 전장에서 살펴보았듯 [B]계열에는 장승상부인이 사향의 모함에도 다른 계열의 부인들과 달리 바로 승상에게 고하지 않고 고민하는 부분을 서술하여 부인이 숙향을 사랑하였고 이에 숙향을 내쫓는 일에 있어서 주체적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이 결정하였던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전의 자비로움을 부연하여 숙향을 버리게 되는 일이 아버지로서의 잔인함이 아니라 버리고 가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었던 모습을 말하고자 한다. 이 부분들 외에도 김전 부인이 숙향을 가졌을 때 태교하는 모습을 전고를 사용하여 숙향을 사랑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B]계열에서는 신분이 높은 인물들의 행

74) 지연숙, 「숙향전 한문본 연구」,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p.95.

동에 대한 묘사가 많아졌으며 이들이 숙향에게 주는 고난에 대한 변명이 첨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결국 지배질서에 대한 확인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유교적 지배이념이 강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㉔계열의 두드러진 특징은 환상성의 탈락이다. 국문본과 다른 한문본계열에서는 모두 서술되는 요소들이 ㉔계열에서만 누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즉 환상적 요소의 제거는 ㉔계열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환상적 면모가 탈락되면 고난과 성취의 관계는 필연적일 수 없게 된다. ㉔계열에서 숙향은 고난 앞에서 의지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환상적인 요소들이 제거 되었기에 숙향에게 있어서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환상적인 요소들이 제거된다면 숙향은 정말 현실적 고난을 겪은 것이 되어 버리며 작품의 현실성이 강해져 리얼리티가 강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숙향 같은 존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민중적인 성격에서 생각해 볼 때 독자들은 위로받지 못하게 된다. 민중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겪는 아픔들을 위로받기 위하여서는 초현실적이며 환상적인 요소가 강화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환상적인 부분이 사라진다고 하여 작품의 현실성이 강화되는 것일지는 더욱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고난 앞에서의 모습과 달리 결연 앞에서 숙향의 의지적인 모습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선과 숙향의 결연에서 보면 지위가 높은 고관이 하층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의 관계가 천상세계에서는 대등했는데 이러한 천정연분인 운명을 약화시킴으로 이선이 숙향에 대한 시혜적 면모가 강조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작품 곳곳에서 숙향의 아름다움이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서술자의 서술에서의 숙향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이선의 눈에 아름다운 숙향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에 이선은 숙향을 보고 반하게 되고 결연을 다짐한다. 숙향을 보고 그 아름

다음에 반하여 결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현실성이 강화되면 이는 통과 의례적 성격이 거부될 수 밖에 없다. 즉 ㉠계열에서는 쟁취해 나아가고자 하는 운명적 사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선의 경우이다. 이선은 계속해서 노력하여 숙향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숙향의 모습에서는 그렇지 않다. 고난앞에서 적극적으로었던 숙향은 결연앞에서 수동적으로 변화한다. 작품 내에서 결연을 향한 숙향의 노력이나 쟁취가 드러나지 않기에 이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 베푸는 시혜적 면모가 강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계열에서는 운명 때문이 아닌 이선의 모습을 보고 결혼을 받아들이는 숙향과 숙향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여 결혼하고자 하는 이선의 모습을 통하여 자유연애라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진보적인 내용처럼 보이지만 신분이 낮은 여성이 고귀한 남성을 바라고 신분이 높은 남성이 계속해서 미천한 여성에게 구혼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요지연에서의 구슬 즉 운명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은 한편으로는 ‘수단’적인 사랑 일 수 있으며 무매개적이며 합목적이기만 한 사랑에서는 ‘기이함’만 나타날 뿐이다. 이는 통속적인 사랑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⁷⁵⁾ 이는 남녀 간의 애정에 대한 현실성이 강조되고 통과의례적 요소가 약화 되며 애정담의 낭만적 속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난의 현실적 성격이 강화 된다고 해서 작품의 주제의식에 있어서 현실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계열은 환상적인 요소를 대거 탈락시켜 현실적인 모습을 그려놓은 듯 하지만 가장 기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열에서는 숙향을 얻기 위한 이선의 고난과 수고가 잘 드러나지 않으며 이선의 적극적인 정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 할미가 이선을 힘들게 시험하는 이유는 이선이 숙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것이고,

75) 류준경, 한문본 <춘향전>의 작품 세계와 문학사적 위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254.

이것이 아무리 운명이며 천정연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의지와 정성이 중요함을 보고자 함이다. 하지만 ㉠계열에서는 숙향의 모습을 보고서 숙향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연 후 서로의 천정연분의 증거들을 확인한다. 즉 애정물로 강화되는 ㉠계열의 모습과 주제의식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계열의 비현실적인 사건과 인물들의 탈락은 한문을 사용하는 계층의 합리적 사고를 이용한 개작이며 괴력난신을 멀리하기 위한 모습이었을 수 있다. 또한 한문구사층의 윤리적 시선으로 내용을 개작한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국문본과 다른 한문본에서는 숙향이 화재를 만나 벌거벗는 장면이 등장한다. 하지만 ㉠계열에서는 누락시킨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숙향은 화재를 만나 옷까지 다 타버릴 만큼의 충격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숙향이 인상깊게 고난을 겪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열에서는 제거되고 있기에 상층의 시선으로 과도하게 윤리의식이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V. 結 論

본 연구는 한문본 <숙향전> 이본의 양상과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숙향전>은 신성소설, 애정소설, 영웅소설 등 많은 장르에 속하며 연구되어온 작품이며 그만큼 다양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사의 방법으로 전해진 <숙향전>도 다른 필사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작자들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의식세계를 작품에 담아내었다. 이에 <숙향전>은 매우 많은 이본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애독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숙향전> 한문본 이본의 양상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는 그 의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한문본 <숙향전> 이본의 계열별 특징을 살피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숙향전>은 운명과 정성의 서사라고 볼 수 있다. 국문본은 이러한 서사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한문본은 국문본의 영향을 받아 내용상의 큰 차이없이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국문본에서는 운명과 정성이 병치되어 있는 반면에 한문본에서는 국문본에 비하여 정성의 서사가 약화되어 있으며 전생담 부분이 약화되어 있어 운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문본 이본들도 계열마다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서술되어 있다. ㉠계열은 고난앞에서 통과외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문본의 비현실적인 면모를 이어받았으며 전생담 부분의 축소로 고난의 현실성이 강조되어 뒤에 나오는 성취 또한 강조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계열은 높은 지위의 인물들이 숙향을 고난의 자리로 내몰 때의 상황이 서술되어 있다. 이 부분들은 이러한 인물들이 그럴 수 밖에 없었음에 초점을 두고 변명하며 합리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이는 유교적 지배이념이 강한 작품이라 볼 수 있으며 결국 지배질서에 대한 확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계열은 국문본과 가장 떨어져 있는 이본 계열로 비현실적이며 환상적인 요소들이 대거 탈락

하여 있고 이로 인해 애정이 강화되며 통속성이 강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환상적 모습의 탈락으로 시혜적인 면모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양반층이라 볼 수 있는 한문 사용 계층의 합리적 사고를 이용한 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각 한문본 <숙향전> 이본의 양상과 특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본 간의 다양한 차이와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이본연구의 중요성을 더욱 확실히 하였다. <숙향전>을 읽어내는 다양한 시선들이 부딪히면서 같은 <숙향전>이지만 다양한 모습의 <숙향전>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소설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전 연구에서 소홀히 검토되었던 각 한문본 <숙향전> 이본의 차이를 통하여 계열별 주제의식을 살피는 본격적인 고찰이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본 각 텍스트가 갖는 주제의식에 차이를 통하여 독자층의 차이가 이본의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는 계열의 차이가 작자의 계층이나 지역, 나이와 배경이 다를음을 논의하고 계열별 작자에 대하여 알아보며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1. 자료

- 『숙향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淑烈傳』,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淑香傳』, 고려대학교 소장.
『淑香傳』,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淑香傳』,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淑香傳』, 김동욱 소장.
『淑香傳』,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淑香傳』,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李太乙傳』, 김동욱 소장.
『梨花亭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梨花亭奇遇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再世奇遇記』, 고려대학교 소장.
『漢文懸吐淑香傳』, 회동서관(1916).

2. 단행본

-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83.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출판부, 1989.
신혜진, 『朝鮮後期 世態小說選』, 월인, 1999.
오탁변, 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이상택, 『한국고전소설의 이론』, 새문사, 2003.

- 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 장효현 외, 『교감본 한국한문소설 애정세태소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2011.
- 조동일, 『한국소설의이론』, 지식산업사, 2012.
- 조희웅, 『古典小說異本目錄』, 집문당, 1999.
- 차용주, 『한국한문소설사』, 아세아문화사, 1989.

3. 논문

- 구충희, 「숙향전 이본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권혁래, 「조선조 한문소설과 국문소설 텍스트의 상호 전환 및 번역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연구보고서, 1999.
- 김응환 「숙향전의 도교사상적 고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김일열, 「한문소설의 독자」, 어문논총 제24호, 1999.
- 류준경, 「한문본 <춘향전>의 작품 세계와 문학사적 위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박희병, 「漢文小說과 國文小說의 관련양상」, 『한국한문학연구』 22, 한국한문학회, 1998.
- 성현경, 「숙향전 연구」, 『동아연구』 27, 서강대동아연구소, 1994.
- 심치열, 「숙향전 연구」, 『한국언어문학』 38, 한국언어문학회, 1997.
- 이상구,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 이상구, 「숙향전 국문본의 특성과 계통」, 『민족문화연구』 26,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8.

-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조용호,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회, 1992.
- 조희웅, 「숙향전 형성연대 재고 -일본측 자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 지연숙, 「숙향전 한문본 연구」,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차충환, 「숙향전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차충환, 「숙향전의 구조와 세계관」, 『고전문학연구』 15, 한국고전문학회, 1999.
- 최운식, 「고소설의 이본 연구」, 국제대학논문집 제13집, 1985.
- 최재웅, 「<숙향전>의 공간 구성 원리와 의미」,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2003.

4. 국외논저

- D. 부세, 「원문 비평의 방법론에 관한 小考 : 「남정기」와 「구운몽」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97.

ABSTRACT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versions of Sukhyangjeon in Chinese character

Kim Hyun Kyung

Department of chinese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was initiated to examine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versions of <Sukhyangjeon> in Chinese characters. Since it was the work that was enjoyed in mass production of many vers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tudy on its versions is very important. The investigation of different versions is very important in analyzing the work, and if the difference is examined, it will also be meaningful in studying the consciousness of the author and readers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In addition, since the versions of <Sukhyangjeon> in Chinese characters will be the data that allow understanding of the view of the class that could use Chinese characters at the time,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aspects of the versions of <Sukhyangjeon> in Chinese characters, and accordingly to discuss their differences and meanings of the theme.

There are a total of 12 versions of <Sukhyangjeon> in Chinese characters, including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Therefore, in this study, such 12 versions were all examined. Firstly, bibliographies were investigated, and the differences in proper nouns between versions tabulated. The versio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similarity of proper nouns, and the best version of each group was found while a representative version was set in order to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the versions in detail.

The differences between the versions were divided in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that can be found through narrative development and those of each that can be found through character images. Five important parts in the plot of <Sukhyangjeon> were examined for the narrative development whil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were examined for the character aspects through Sukhyang, Yi Seon, Mago grandma, Kim Jeon, and the Noble Lady Jang. The prominent characteristics found in each group were closely investigated, and the resulting aspects and theme of each group are as follows.

Although the [A] group abbreviated Korean version substantially, they did not make a large change in the narrative development and central plot. Although they succeeded to unrealistic contents of the Korean version for the narrative development, the faithfulness was weakened while the fate was emphasized unlike the Korean version, which is a juxtaposition of fate and faithfulness. The [B] group have many parts depicting the situations or characters, and describing them extensively, and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they tend to reveal the strong

Confucian ruling ideology and confirm the ruling order. The ㉔ group may be regarded as an adaptation using rational thoughts of the class that could use Chinese characters since most scenes and characters with strong fantasy elements have been omitted. These also strongly show the aspects of the wit and beauty novels (Caizi Jiaren novels) that emphasized love and the popular nature.

Thus, various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among the versions have been found in the process of elucidating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versions of the <Sukhyangjeon> in Chinese characters, which further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 study on the versions. In addition, it was considered that the difference in readers would have produced the difference in the versions through the changes in the theme of each text of the versions, and thus further studies to identify the readers are warranted.